

한국사연구회

제350차 월례발표회

자료집

일시 : 2023년 12월 9일(토) 13:30~16:30

장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 및
ZOOM(대면·비대면 동시진행)

ZOOM ID: 253 266 4989 / PW: v7XCh4

식 순

사회: 김보광(가천대)

제1발표 13:30~14:30

『魏略』·『三國志』를 통해본 기자조선설의 형성

발표 : 조원진(한양대 문화재연구소)

토론 : 김남중(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제2발표 14:30~15:30

高麗와 遼·金의 權場貿易 推移와 性格

발표 : 박정환(건국대)

토론 : 정나영(이화여대)

제3발표 15:30~16:30

제국의 조선우 산업과 식민지 축우 육성

-장윤걸, 노성룡의 조선우 연구-

발표 : 김진규(서울대)

토론 : 노성룡(고려대)

목 차

『魏略』·『三國志』를 통해본 기자조선설의 형성

- 발표문 : 조원진(한양대 문화재연구소) 1
- 토론문 : 김남중(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21

高麗와 遼·金의 權場貿易 推移와 性格

- 발표문 : 박정환(건국대) 25
- 토론문 : 정나영(이화여대) 45

제국의 조선우 산업과 식민지 축우 육성

-장운걸, 노성룡의 조선우 연구-

- 발표문 : 김진규(서울대) 47
- 토론문 : 노성룡(고려대) 61

『魏略』·『三國志』를 통해본 기자조선설의 형성

조원진(한양대 문화재연구소)

1. 머리말
2. 후한대의 기자 전승
3. 『魏略』·『三國志』의 기자 기사
4. 기자조선설의 형성과 그 배경
5. 맺음말

1. 머리말

선진문헌에 기록된 기자(箕子)는 상나라의 마지막 충신이자 사상가로 조선과 연관된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전한시대에는 기자가 조선에 갔다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 나타나게 된다(『상서대전』, 『사기』). 이때의 기자 전승은 기자가 조선을 갔다는 막연한 인식이었다. 후한시대에는 기자가 조선지역으로 가서 현지 주민을 교화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등장한다(『한서』). 또한 낙랑지역의 범금팔조를 소개하는 등 현지의 풍속도 일부나마 기록되었다. 위진대 이후에는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조선후·부왕·준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며(『위략』) 나아가 위만에게 밀려난 고조선의 준왕을 기자의 40여세 손으로 기록하게 된다(『삼국지』, 『후한서』). 현대의 인식이 단순히 기자가 조선에 갔다는 ‘기자동래설’이라고 한다면 위진대부터는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은 기자조선으로 파악하게 되는 이른바 ‘기자조선설(箕子朝鮮說)’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삼국지』, 『후한서』 등의 기사를 바탕으로 기자조선설은 역사적 실체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러한 기자조선설은 근대시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재평가되었다. 특히 『삼국지(三國志)』 한전의 분석을 통해 준왕은 ‘기씨(箕氏)’가 아닌 ‘한씨(韓氏)’였다고 보거나¹⁾ 『위략(魏略)』의 ‘기자지후(箕子之後)’는 ‘기자의 후예’가 아닌 ‘기자 이후’라는 해석²⁾은 기자조선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였다. 또한 기자 동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환의 『위략』은 낙랑(樂浪) 한씨(韓氏)의 위계보(僞系譜)에 근거한 기록으로 보고 『위략』의 사료적 가치까지 불신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³⁾ 한편 『삼국지』의 기록을 인정하면서 기자의 후손인 준왕의 조선은 고조선 서쪽의 일부 세력이라고 보거나⁴⁾ 기자조선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

1) 이병도, 1985, 『韓國古代史研究』(수정판), 박영사, 44~64쪽.

2) 鄭寅普, 1946, 『朝鮮史研究(上)』, 서울신문사.

3)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2卷 10·11號(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4)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 윤내현, 1986, 『韓國古代史新論』, 일지사.

하는 연구⁵⁾도 있었다. 현재 한국, 북한, 일본학계에서는 기자조선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준왕과 기자의 관계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국학계 일각에서는 기자의 동래와 기자조선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⁶⁾

기자조선설이 성립된 위진대에는 대방군 설치, 위나라의 고구려 원정 등으로 동이 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며 고조선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입수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략』·『삼국지』에는 기존 정사에 전하고 있지 않던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사가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기자와 관련되어 윤색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때 새로운 자료가 입수됨에 따라 기자조선설이 확장되는 양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자조선설이 성립된 것이 『위략』인지 『삼국지』인지도 학자간 견해가 다르다.⁷⁾

본고는 『위략』·『삼국지』를 중심으로 고조선 및 기자 자료를 검토하며 기자조선설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위략』·『삼국지』에 대해서는 전해종의 선구적인 연구⁸⁾와 윤용구의 지속적인 연구⁹⁾가 있었다. 또한 관련 연구로는 『삼국지』 한전(韓傳)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¹⁰⁾, 『위략』·『삼국지』의 관련 기사를 검토하거나¹¹⁾ 『위략』·『삼국지』의 원자료에 대한 연구¹²⁾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삼국지』가 『위략』의 기사를 대부분 차용했다는 기존 인식이 재검토되었으며 『위략』의 원자료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삼국지』 한전에 대한 정보는 직접 체험을 통해 확보된 것이 아니기에 전문 과정에서의 와전이나 중화의식의 발로로 인한 자민족 중심 시각의 개입을 염두해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5) 천관우,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28~89쪽.

6) 苗威, 2019, 『箕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7) 기자조선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것은 『후한서』라고 보는 연구도 있다(吳銳(강길중 역), 2019, 「기자조선과 동북아 역사」, 『동북아 민족문화의 재발견』,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108~111쪽).

8)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의 檢討』, 일조각.

9) 尹龍九, 1998,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 윤용구, 2008, 「삼국지 부여전의 문헌적 검토,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윤용구, 2010, 「『三國志』 판본과 『東夷傳』 교감」, 『한국고대사연구』 60 ; 윤용구, 2019, 「『삼국지』와 『후한서』 韓傳의 ‘辰王’ 이해 -出土文獻와 傳存文獻의 字句變化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92 ; 윤용구, 2023, 「『삼국지』·『후한서』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111.

한편 중국학계와 일본학계의 최근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 소개되어 있다. 윤용구, 2010, 「『三國志』 판본과 『東夷傳』 교감」, 『한국고대사연구』 60, 234~246쪽.

10) 金延鶴, 1975, 「魏志 韓傳 小考」, 『문리과대학 논문집』 14 ; 박대재, 2002, 「삼국지 한전의 진왕에 대한 재인식」, 『한국고대사연구』 26 ; 신현웅, 2003, 「『삼국지』 한전 기록의 실제」, 『한국고대사연구』 32 ; 신현웅, 2004, 「삼국지 한전 기사의 판독 -민족지적 기록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1 ; 신현웅, 2005, 「『三國志』 韓傳 記事의 判讀—정치관계 기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5 ; 신현웅, 2008, 「『翰苑』 三韓傳과 『魏略』의 逸文(1) -『한원』 인용문 분석과 검토-」, 『신라문화』 32 ; 문창로, 2017, 「『삼국지』 한전(韓傳)의 ‘삼한(三韓)’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5 ; 문창로, 2018, 「『삼국지』 한전의 王號와 그 실상」, 『한국학논총』 50 ; 전진국, 2019, 「삼국지 한전에 기술된 한반도 중부 지역」, 『역사와 담론』 92.

11) 鄭春穎, 2008, 「《魏志·高句麗傳》与《魏略·高句麗傳》比較研究」, 『北方文物』 4 ; 서영교, 2018, 「『三國志』 『魏略』의 ‘斯羅國’과 『魏書』의 ‘斯羅’ -6세기 초 羅濟同盟의 항방과 관련하여-」, 『역사학연구』 59 ; 김남중, 2018, 「『魏略』 韓傳의 특징과 『三國志』·『三國史記』와의 관계 -박씨왕 초기 신라의 대외 관계 이해를 위한 사료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28.

12) 박노석, 2011, 「『삼국지』위서 동이전의 정보 출처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38 ; 오강원, 2012, 「『삼국지』 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 『정신문화연구』 128.

있었다.¹³⁾

본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史記』와 『漢書』를 중심으로 기자동래설이 성립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검토한 바 있다.¹⁴⁾ 본고에서는 먼저 후한대의 기자 인식과 조위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위략』·『삼국지』의 관련 기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기자조선설이 성립되는 과정과 기자조선설이 성립된 것이 『위략』 단계인지 『삼국지』 단계인지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후한대의 기자 전승

늦어도 전한말에는 기자동래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기자동래설의 확장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후한대 문헌은 『漢書』, 『易林』, 『潛夫論』 등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후한대의 기자 전승

연번	문헌	내용	성서연대
A-1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	○ 현도(玄菟)·낙랑(樂浪)은 무제때 설치했는데 모두 조선(朝鮮)·예맥(濊貉)·구려(句驪) 오락케이다. 은(殷)의 도가 쇠약해지자 기자는 조선으로 갔다. 그 백성에게 예의와 밭을 경작하고 누에를 치고 직물을 짜는 것을 가르쳤다. 낙랑(樂浪) 조선(朝鮮)에는 범금팔조(犯禁八條)가 있었다. 사람을 죽인 것은 마땅히 죽는 것으로 갚는다.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며,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가노(家奴)로 삼고 여자는 비(婢)로 삼는데, 면죄 받으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했다. 비록 면하여 평민이 되더라도 세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부끄러워하여 시집가고 장가갈 때 짝으로 삼지 않았다. 이로써 그 백성들은 마침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문을 닫는 일이 없어지고 부녀자들은 정조를 지켜 음란하지 않았다. 그 지역 농민들은 변(籩)과 두(豆)로 먹고 마셨는데 도읍(都邑)에서는 관리와 내군(內郡)의 상인을 모방하여 이따금 배기(杯器)로 먹고 마셨다. 군(郡)은 초기에는 관리를 요동에서 데려왔는데 관리는 백성들이 문을 닫지 않은 것을 보았다. 상인 가운데 왕래하는 자가 밤에 도적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각박해져서 지금은 범금(犯禁)이 많아져 60여 조에 이른다. ¹⁵⁾	후한말
A-2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	○ 낙랑군 조선현(웅소가 말하길 무왕이 조선에 봉하였다). ¹⁶⁾	후한말

13) 박대재, 2002, 「삼국지 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한국고대사연구』 26, 37쪽 ; 정운용, 2008, 「中國 正史 4史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認識」, 『선사와 고대』 29, 54쪽.

14) 조원진, 2023a,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9 ; 조원진, 2023b, 「『漢書』의 古朝鮮·漢郡縣·箕子 자료에 대한 검토」, 『동양학』 92.

A-3	『易林』 卷第7 未濟	○ 조선(朝鮮)의 땅은 기자(箕子)가 보전한 땅이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화목하다. 자손들이 번창하고 모든 일들이 대길(大吉)하기를 기원하였다. ¹⁷⁾	후한
A-4	『易林』 卷第7 革	○ 조선의 땅은 기자가 보전한 곳이다. 집집마다 사람마다 화목하고, 자손들이 번창하다. ¹⁸⁾	후한
A-5	『潛夫論』 卷9 志氏姓 第35	○ 옛날에 주 선왕(周 宣王) 또한 한후(韓侯)가 있었다. 그 나라의 것이 연에 가까웠던 까닭에 시경에 이르기를 “넓도다. 저 한성(韓城)이여. 연(燕) 사람들이 완성하였도다.”라고 하였다. 그후에 한서(韓西) 또한 한(韓)을 성으로 삼았는데 위만(魏滿)에게 정벌당하여 거처를 해중(海中)으로 옮겼다. ¹⁹⁾	후한

전한대의 『史記』와 『尙書大傳』의 기록에서는 기자가 조선으로 가고 무왕이 조선에 봉했다고 기록했을뿐 조선으로 간 기자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후한대에 이르러 조선으로 간 기자의 행적이 등장한다. A-1)에서는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곳 주민에게 예의와 농사와 방직을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낙랑조선에 ‘범금팔조(犯禁八條)’가 있었으며 군현 설치 이후에는 풍속이 각박해져서 60여 조(條)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중국문헌에서 조선으로 간 기자의 행적과 관련된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하지만 이처럼 한인(漢人)이 이민족의 국가에 가서 지역을 교화했다는 내용은 중국정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적 교화 전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후한서(後漢書)』 서강전(西羌傳)에 실린 ‘강인 무익애검 전승’이 있다.²⁰⁾ 이 전승은 강인들이 농사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었던 공적을 한나라에서 추방된 용인으로서 되돌아간 사람에게 돌렸다. 이 전승의 원형은 당시 강(羌)이라 불리는 부족에서 전해오던 구전에서 채집한 것일 것이다. 기자 전승과의 차이는 건너간 한인(漢人)이 왕족인가 용인(戎人) 노예였나 하는 차이뿐이다.²¹⁾

A-1) 기록의 핵심은 낙랑조선의 범금팔조 기사라 할 수 있는데 범금팔조와 기자는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에 앞서 기자가 현지 주민을 교화한 전승을 수록했지만 이것은 실제 기자의 행적이라기 보다는 전한시대에 등장한 기자동래설이 영향을 주면서 현지 기사에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한시대를 거쳐 낙랑 통치가 점차 안정을 찾으며 현지 풍속의 변화한 기사를 실으면서 기자가 조선의 통치자로 교화한 이야기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자는 단순히 조선에 망명한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교화시킨 성인이자 통치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풍속기사는 『사기』 화식열전과 전한 말 성제대(成帝代) 승상인 장우(張禹)의 지시로 만든 각 지역의 풍속 기록으로 편찬한 것이다.²²⁾ 따라서 이 기록은 군현 설치후 약 1백년

15)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作 樂浪 朝鮮民犯禁八條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讎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

16)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 "樂浪郡 朝鮮(應召曰 武王封箕子於朝鮮)"

17) 『易林』 卷第7 未濟, "朝鮮之地 箕伯所保 宜人宜家 業處子孫 求事大吉"

18) 『易林』 卷第7 未濟, "朝鮮之地 箕子所保 宜家宜人 業處子孫"

19) 『潛夫論』 卷9 志氏姓 第35, "昔周宣王亦有韓侯 其國也近燕 故詩云 普彼韓城 燕師所完 其後韓西亦姓韓 爲魏滿所伐 遷居海中"

20) 『後漢書』 卷87 西羌傳

21) 왕명가(이경룡 역), 2008,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동북아역사재단, 419~421쪽.

22) 五井直弘, 1956 「漢書地理志の一考察」, 『中國古代史研究』 1, 雄山閣, 372~373쪽 ; 윤용구, 2004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늦어도 전한말 기자동래설이 성립되었고 이시기 기자가 낙랑지역 주민을 교화시켰다는 인식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²³⁾

그리고 A-2)의 기록은 후한말 응소의 주석이다. 『한서』 지리지의 낙랑군 조선현에 대해 응소는 무왕이 조선에 봉하였다고 했다. 이는 이미 후한말에는 조선지역이 기자가 봉해진 것이라는 인식이 상투적으로 등장할 정도로 기자동래설이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A-3,4)는 『역림(易林)』에 나타난 기자 인식이다. 『역림』의 찬자에 대해서는 전한 소제대 초연수(焦延壽)가 찬했다는 견해와 후한대 허준(許峻)이 찬술했다는 견해 등이 있다.²⁴⁾ 하지만 조선지역을 기자와 연결시킨 내용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후한대 인식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5)는 후한시대에 편찬된 자료로 『시경(詩經)』에 수록된 한후(韓侯)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서 한서(韓西)가 위만의 공격을 받고海中(海中)으로 옮겨간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 기사는 기자와 직접 관련된 기록은 아니다. 또한 조선(朝鮮)이라는 국호나 준왕이라는 이름도 오지 않는다. 다만 『사기』에는 만왕(滿王)이라고만 하던 (위)만조선 건국자의 성을 ‘위씨(魏氏)’로 기록했으며 위만에게 밀려난 이전 고조선의 통치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사는 기자와의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전 기록에는 볼 수 없던 위와 같은 기록이 등장한 것은 현지의 자체 전승이 입수된 결과일 것이다.

또한 후한 채옹(蔡邕, 132~192)의 『금조(琴操)』에는 고조선의 가요인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가 실려있다. 이것은 채옹이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노래를 취득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남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⁵⁾ 이처럼 후한대에는 군현 설치후 약 200년이 흐르면서 고조선 지역의 자체적인 자료가 낙랑군 등을 통해 입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한대에는 『한서』 지리지를 제외하면 아직 이러한 자료를 기자 전승과 연결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조선의 자체적인 전승은 ‘기자동래설’이 ‘기자조선설’로 윤색되는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한말 기자동래설이 널리 확산되면서 낙랑 현지 주민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구당서(舊唐書)』에는 고구려가 “영성신(靈星神), 일신(日神), 가한신(可汗神)과 함께 기자신(箕子神)을 섬긴다.”²⁶⁾는 기록이 있어 고구려 당시 평양지역에선 기자를 섬기는 풍속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낙랑토성 중앙에서 출토된 ‘낙랑부귀(樂浪富貴)’와 ‘낙랑예관(樂浪禮官)’ 문자 와당은 낙랑군에 예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기자사(箕子祠)와의 관계를 상정하기도 한다.²⁷⁾ 이를 통해 전한말 이래 기자동래설이 점차 확산되면서 낙랑지역에는 기자를 섬기는 풍속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의 흥기와 책구루』,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12쪽.

23) 조원진, 2023a, 앞 논문, 36쪽.

24)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2019, 『역주 고조선 사료집성(중국편)』, 새문사, 390~391쪽.

25) 박노석, 2011, 앞 논문, 16쪽.

26)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上 東夷 高麗傳, “其俗多淫祀 事靈星神 日神可汗神箕子神”

27) 이성규, 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9~49쪽 ; 김남중, 2021, 「위만조선의 멸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왕검성의 소멸과 조선현의 中心地化와 관련하여-」, 『고조선단군학』 46, 75쪽.

3. 『魏略』·『三國志』의 기자 기사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한대에 기자동래설이 확장되었으나 아직 기자가 고조선의 통치자가 되었는지 그 후손이 조선지역을 기자처럼 교화했는지는 불확실했다. 그런데 魏末~西晉初가 되면 기자 전승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즉 『삼국지』에서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준왕을 기자의 40여 세 손이라고 한 기록이 나타난 것이다. 이전 시기인 『尙書大畧』이나 『史記』는 기자가 조선지역으로 가고 이를 무왕이 형식적으로 봉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자동래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漢書』에서 기자가 조선지역을 교화한 내용이 나타나고 이어서 『삼국지』에서는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어 그 왕조가 준왕까지 40여대를 이었다고 볼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기자조선설’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자조선설이 형성된 것이 『위략』 단계인지, 아니면 『삼국지』 단계인지 하는 점이다.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은 어환의 『위략』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²⁸⁾ 그런데 『위략』에는 준왕과 기자를 직접 연결시킨 내용이 확인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위략』의 기록을 살펴보겠다. 『위략』은 진대(晉代) 초에 어환(魚豢)이 지은 문헌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저본이 되었으며 진수가 『삼국지』를 편찬한 이후 배송지는 『위략』을 많이 인용하여 보완했다. 동이전의 『위략』의 인용 사례는 항목별로 1~2건에 지나지 않는데 한전은 무려 5건이며 분량도 많아 이례적으로 『위략』의 의존도가 높다.²⁹⁾ 특히 『위략』의 고조선 관련 기사는 모두 『삼국지』 한전에 인용되어 있다. 『삼국지』 한전에 실려 전하 『위략』의 逸文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⁰⁾

<표2> 『위략』의 고조선 및 기자 관련 기록

28) 전해중, 1980, 앞 책.

29) 주보돈, 2013, 「三韓 관련 基本史書의 문제」,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82~83쪽.

30) 본고에서 해당 기사의 번역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였다. 서영수 주편,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국사편찬위원회 ; 동북아역사재단, 『역주 중국정사 동이전』 1.

연번	문헌	내용	성서연대
B-1	『魏略』	○ 위략(魏略)에 이르길 옛날 기자지후(箕子之後) 조선후가, 주(周)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고 칭하고, 동쪽으로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조선 후도 또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맞아서 공격하여 주나라 왕실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 대부(大夫) 예(禮)가 간언하므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예를 서쪽에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중지하고 침공하지 않았다.) 후에 [조선 후의]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학해지자, 연이 장군 진개(秦開)를 파견하여 그 서쪽 지방을 침공하여 2천여 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한(滿潘汗)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으니, 마침내 조선이 쇠약해졌다. 진(秦)나라가 천하를 모두 병합함에 미처서 몽염(蒙恬)에게 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까지 이르렀다. 이때에 조선 왕 부(否)가 왕에 올랐는데, 진(秦)나라가 쳐들어올까 두려워하여 정략적으로 진에 예속하였지만, 직접 조회(朝會)하지는 않았다. 부가 죽자, 그의 아들 준(準)이 왕에 올랐다. 20여 년이 지나서 진승(陳勝)과 항우(項羽)가 반란을 일으켜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연(燕)과 제(齊), 조(趙)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차츰 도망하여 준에게 갔다. 준왕이 이에 그들을 서쪽 지방에 거주케 하였다. 한나라 시기에 이르러 노관(盧綰)을 연왕(燕王)으로 삼아서 조선과 연은 패수(淇水)를 경계로 하였다.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로 들어감에 미처서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준왕에게 와서 항복하였다. 그리고 준왕을 설득하여 서쪽 경계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조선의 제후국[藩屏]이 되었다. 준이 그를 신뢰하고 총애하여 박사(博士)로 삼고, 규(圭)를 하사하였으며, 1백리의 땅을 봉(封)해주고,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만이 망명한 사람들을 피어서 무리가 점점 많아졌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준에게 거짓으로 아뢰기를 “한나라 군대가 10도(道)로 나누어 이르니, 들어가서 숙위(宿衛)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돌아와 준왕을 공격하였다. 준이 만과 서로 싸웠으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³¹⁾	魏 ~ 西晉
B-2	『魏略』	○ 위략(魏略)에 이르길 그의 아들 및 친척으로 나라에 머무른 자들은 이로 인하여 거짓으로 한씨(韓氏)를 칭하였다. 준왕이 바다 건너 있으면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³²⁾	魏 ~ 西晉
B-3	『魏略』	○ 위략(魏略)에 이르길 처음에 우거(牛渠)가 격파되지 않았을 때에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이 간언하였으나, 우거가 받아들이지 않자, 동쪽으로 진국(辰國) ⁹⁴⁾ 에 갔다. 이때에 백성으로 그를 따라 나간 사람들이 2천여 호였다. 그 역시 조선·진번[貢蕃]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³³⁾	魏 ~ 西晉

<표2>에서 보는 것처럼 B-1)에는 1) 전국시대 조선후가 왕을 칭하고 연나라와 대립하는 과정 2) 진개에게 서방 2천리를 빼앗기고 만번한을 경계로 삼게 되는 사건 3) 부왕대 고조선

31)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朝鮮遂弱.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 淇水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淇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收]中國亡命 爲朝鮮藩屏 準信寵之 拜 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 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32)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33)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魏略曰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讓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 貢蕃不相往來”

이 진나라와 대립하며 조화하지 않는 사건 4) 준왕대 위만을 신임했다가 나를 빼앗기는 과정이 기록되었다. 연·진·한초 대외관계와 위만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은 『史記』 조선열전에도 기록되었으나 『위략』의 기사가 훨씬 더 자세하다. 따라서 어환은 『史記』·『漢書』 이후 새롭게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략』의 원자료에 대해서는 낭중이라는 낮은 관직을 지낸 어환이 새로운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 고조선 관련 기사는 『동관한기(東觀漢記)』에서 인용했다고 보기도 한다.³⁴⁾ 『위략』의 기사는 주로 위만조선의 건국까지의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위만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B-2)에서 위만조선에 그대로 남은 아들 및 친척은 거짓으로 한씨(韓氏)를 칭하였으며 준왕은 바다 건너 있으면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B-3)에서는 우거왕대에 조선상 역계경이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동쪽으로 진국으로 갔으며 역시 조선·진번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한다. B-2)과 B-3)은 모두 준왕과 역계경이 바다 건너 혹은 진국으로 간 이후 조선지역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남천 이후의 준왕 사적이나 역계경이 진국으로 간 이후의 일은 기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략』의 원자료는 고조선 지역의 입장만 반영된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사에 대한 내용은 조선후에 대한 기사에 앞서 ‘기자지후(箕子之後)’라고 언급한 것이 유일하다. 이 구절에서 기자와 조선후를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에 살펴볼 『삼국지』는 서진(西晉, 265~316)의 사관이었던 진수(陳壽, 233~297)가 무제(武帝) 태강(太康) 연간(280~289)에 삼국시대(220~265)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삼국시대를 다룬 역사서는 이미 어환의 『위략』, 왕침(王沈) 등의 『위서(魏書)』, 위요(韋曜)의 『오사(吳史)』 등이 있었다. 진수는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여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권, 『오서(吳書)』 20권으로 총 65권의 『삼국지』를 펴냈다. 『삼국지』는 이전 정사와는 달리 본기(本紀)와 열전(列傳)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열전(外國列傳)도 『위서』에만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만 편찬했다. 『삼국지』는 동이사회 중에서 고조선과의 관계 기사에 치우친 『사기』, 『한서』와 달리 동이 사회 전반의 실상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현대에는 조선지역을 조북방 혹은 동방으로 보는 인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부여에 대해서는 『논형(論衡)』의 기록처럼 북이(北夷)로 인식했다. 『삼국지』에 이르러서는 고조선은 물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한, 왜를 모두 동이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처럼 『삼국지』가 중국 동북지역의 나라들은 ‘동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시켜서 분류한 것은 이후 중국 사서들이 동이전을 기록하는데 하나의 효시가 되었다.³⁵⁾

『삼국지』의 기자와 고조선 자료를 살펴보기에 앞서 『삼국지』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삼국지』 서문

34) 오강원, 2012, 앞 논문.

35) 김경호, 2013,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82~83쪽.

연번	문헌	내용	성서 연대
C-1	『三國志』 東夷傳	○ 『서경(書經)』에 “동쪽은 바다로 흘러들고, 서쪽은 사막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구복(九服)의 제도에 관해서는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황역(荒域), 변방] 밖은 여러 번의 통역을 거쳐야 [이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고, [(한인(漢人)의] 발걸음이나 수레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풍속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우(虞)나라[순(舜)임금]로부터 주(周)나라에 이르기까지 서융(西戎)은 백옥(白玉) 고리를 바쳤고, 동이(東夷)에서는 숙신(肅慎)의 조공이 있었으나, 모두 여러 해가 지나서야 도달하였으니, 그 머나먼 거리가 이와 같았다. 한(漢)나라 때에 장건(張騫)을 서역(西域)에 사절로 파견하여 황하(黃河)의 근원을 찾아내고, 여러 나라를 두루 거쳐 드디어 도호부(都護府)를 설치하여 그들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뒤에는 서역의 사정을 빠짐없이 두루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관(史官)도 [서역(西域)의 일을] 상세히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위(魏)나라가 일어서는 비록 서역의 모든 나라가 다 오지는 않았으나, 그 중의 대국(大國)인 구자(龜茲)·우진(于寘)·강거(康居)·오손(烏孫)·소록(疎勒)·월씨(月氏)·선선(鄯善)·차사(車師) 등의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지 않는 해가 없었으니, 대략 한(漢)나라 때의 전례와 같았다.	魏 ~ 西晉
C-2	『三國志』 東夷傳	○ 그런데 공손연(公孫淵)이 부친과 조부에게 이어 삼대에 걸쳐 요동(遼東)을 차지하자, 천자는 그 지방을 절역(絶域(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여겨 [공손씨(公孫氏)에게] 해외(海外)의 일을 맡기니, 결국 [공손씨(公孫氏)가] 동이(東夷)와의 관계를 막고 끊어놓아 [동이(東夷)가] 중국과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초(景初) 연간[237~239; 위(魏)나라 명제(明帝); 고구려(高句麗) 동천왕(東川王)11~13]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 공손연(公孫淵)을 죽이고, 또 군사들이 몰래 바다를 건너가서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접수하니, 그 후로 해외가 안정되어 동이(東夷)들이 굴복하였다. ○ 그 뒤 고구려(高句麗)가 배반하므로 또 다시 한 편의 군사를 파견하여 토벌하면서 지극히 멀리까지 끝까지 추격하니, 오환(烏丸)과 골도(骨都)를 넘어 옥저(沃沮)를 지나 숙신(肅慎)의 왕정(王庭)을 짓밟고, 동쪽으로 대해(大海)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의] 장로(長老)가 ‘얼굴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해가 뜨는 곳 근처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 드디어 여러 나라를 두루 관찰하고, 그들 나라의 법령과 습속을 수집하여 나라의 크고 작은 것의 구별과 각각의 명칭들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나라들은] 비록 이적(夷狄)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조두(俎豆)를 쓰는 법도가 남아 있다. [그러 하기에] “중국이 예를 잃으면, 사이(四夷)에게서 구한다”는 것을 가히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들을 순서대로 찬술하고, 그 같고 다른 점을 열거하여 전사(前史)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다. ³⁶⁾	魏 ~ 西晉

<표2> C-1)에서 보는 것처럼 진수는 동이전 서문에서 서역열전을 생략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서역지역은 그동안 계속 왕래가 있었고 도호를 설치하여 서역의 사정을 모두 알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사관도 서역의 일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국지』에서 서역열전을 입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³⁷⁾ 진수는 이어서 동이전의 입전 배경에 대해 C-2)에서 1) 공손연이 삼대에 걸쳐 요동을 차지하여 동이가 중국과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조위가 군사를 일으켜 공손연을 토벌했다. 3) 또 군대를 몰래 바다 건너 보내 낙랑군과

36)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書稱 東漸于海, 西被于流沙. 其九服之制, 可得而言也. 然荒域之外, 重譯而至, 非足跡車軌所及, 未有知其國俗殊方者也. 自虞暨周, 西戎有白環之獻, 東夷有肅慎之貢, 皆曠世而至, 其遐遠也如此. 及漢氏遣張騫使西域, 窮河源, 經歷諸國, 遂置都護以總領之, 然後西域之事具存, 故史官得詳載焉. 魏興, 西域雖不能盡至, 其大國龜茲·于寘·康居·烏孫·疎勒·月氏·鄯善·車師之屬, 無歲不奉朝貢, 略如漢氏故事. 而公孫淵仍父祖三世有遼東, 天子爲其絕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景初中, 大興師旅, 誅淵, 又潛軍浮海, 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其後高句麗背叛, 又遣偏師致討, 窮追極遠, 踰烏丸·骨都, 過沃沮, 踐肅慎之庭, 東臨大海. 長老說有異面之人, 近日之所出, 遂周觀諸國, 采其法俗, 小大區別, 各有名號, 可得詳紀. 雖夷狄之邦, 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 猶信. 故撰次其國, 列其同異, 以接前史之所未備焉.”

37) 김경호, 2013, 앞 논문, 22~23쪽.

대방군을 접수했다. 4) 군대를 보내 고구려를 정벌했다.³⁸⁾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나라를 두루 관찰하여 상세히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조두를 사용하는 법도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동이 사회가 다른 이민족 사회와 다르다고 했던 『한서』 지리지의 인식(A-1)과 유사하다. 『한서』 지리지의 기자와 교화 기사에 이어 동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결국 기자 때문인 것처럼 서술한 것처럼 진수 역시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나 기자의 존재를 염두해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삼국지』의 고조선 관련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삼국지』의 고조선 및 기자 관련 기록

D-1	『三國志』 韓傳	○ [조선의] 후(侯)인 준왕(準王)이 함부로 왕을 칭하였는데, 연나라에서 망명한 사람 위만(衛滿)에게 공격을 받아 빼앗겼다. [준왕은] 좌우의 궁인(宮人)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서 한지(韓地)에 거처하였고, 스스로 한왕(韓王)이라고 불렀다. ³⁹⁾	西晉
D-2	『三國志』 韓傳	○ 그 후손이 끊어졌는데, 지금 한인(韓人) 가운데 아직도 그 제사를 받들고 있는 자가 있다. 한나라 시기에 낙랑군에 복속하여서 칠마다 조공을 바치고 알현하였다. ⁴⁰⁾	西晉
D-3	『三國志』 濊傳	○ 옛날에 기자가 이미 조선으로 가서 8조(條)의 교훈을 만들어 가르치니, 문을 닫아걸지 않아도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그 후 40여 대가 지나 조선후(朝鮮侯) 준(準)이 참람되게 왕이라고 칭하였다. (진 말기에) 진승(陳勝) 등이 봉기(蜂起)하자, 천하가 秦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이때) 연(燕)과 제(齊), 조(趙)나라 백성으로 조선 땅으로 피난하여 온 자가 수만 명이였다.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북상투 머리에 오랑캐 옷을 입고 또한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 한 무제가 조선을 정벌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4군(郡)으로 삼았다. 이후로부터 오랑캐와 한(漢)이 점점 더 구별되었다. ⁴¹⁾	西晉
D-4	『三國志』 東沃沮傳	○ 한나라 초기에 연에서 망명한 사람인 위만(衛滿)이 조선에서 왕이 되자, 이때 옥저(의 읍락)가 모두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다. 한(漢) 무제(武帝) 원봉(元封) 2년(전 109)에 조선을 정벌하여 (위)만의 손자 우거(右渠)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4군(郡)을 설치하였으며, 옥저성(沃沮城)을 현도군(玄菟郡)으로 삼았다. ⁴²⁾	西晉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삼국지』의 기자 및 고조선 관련 기사는 한진, 예전, 동옥저전에 있다. 한진의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8) 『삼국지』 서문의 기록과는 달리 왕기는 남옥저 지역에서 패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에 왕기가 남옥저나 북옥저, 속신 지역을 돌아보고 정보를 획득했다는 서문 내용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다(박노석, 2011, 앞 논문).

39)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40)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其後絕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

41)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濊傳,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以教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准)[準]僭號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魑結夷服 復來王之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42)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東沃沮傳, “漢初, 燕亡人衛滿王朝朝鮮, 時沃沮皆屬焉.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남천한 이후의 사실(D-1)과 준왕 이후 한 지역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D-2). 예전의 경우 기자는 범글팔조 기사를 소개하고 40여대가 지나 조선후 준이 왕을 칭하다가 진말기 중원 계 이주민을 수용하면서 위만이 왕이 되고 그 지역에 한사군이 설치된 과정이 요약되어 있다(D-3). 『삼국지』에 기자 기사는 예전에만 나타나는데 이 기사가 준왕을 기자와 연결시킨 유일한 기록이다. 동옥저전은 한초에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고 옥저가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다가 한무제의 공격으로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한군현이 설치되면서 옥저성을 현도군으로 삼았다고 하였다(D-4). 옥저가 위만조선에 복속되다는 내용은 이전 『사기』에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한서』 지리지와 같은 책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현도군과 고구려와의 관련성만 서술된 반면 『삼국지』 동옥저전은 현도군과 옥저를 연결시켰다.

<표2>과 <표4>을 비교하면 『위략』과 『삼국지』 기록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공통점은 준왕 집단과 ‘한(韓)’이 관련된 것처럼 기록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위략』(B-1)은 준왕의 아들과 친척으로서 조선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한씨(韓氏)를 사칭하였다고 했고 『삼국지』(D-1)는 위만에게 밀려난 준왕이 한(韓)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칭하였다고 기록했다. 또한 『삼국지』(D-2)는 그 뒤 준왕의 후손은 끊어졌으나, 지금 한인(韓人)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지금(今)은 『삼국지』가 편찬될 당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⁴³⁾ 즉 이 시기 한(韓) 사회에 준왕을 섬기는 집단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위략』과 『삼국지』 모두 기자 기사는 1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자 기사는 『사기』에 16건, 『한서』에 7건이 발견되는 것⁴⁴⁾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사기』는 은본기(殷本紀)와 주본기(周本紀)를 포함한 통사이며 『한서』는 정사 중에서 최초로 오행지(五行志)를 수록하여 홍범의 저자로 알려진 기자 기사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위략』과 『삼국지』는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삼국지』는 위만 이전의 고조선 왕 중에서 준왕만을 기록했다. 반면 B-1)에서 보는 것처럼 『위략』은 이전의 다른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선이 연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주왕실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등 일부 윤색된 구절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기록에는 고조선과 연나라의 대립, 고조선 부왕이 통일제국인 진나라와 구체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는 모습, 준왕이 위만이 망명해오자 서쪽 변방을 지키게 했다가 나라를 잃는 과정 등 다른 문헌에는 전하지 않는 고조선의 역사상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부 윤색된 부분은 확인되지만 고조선 통치자의 칭왕이나 고조선이 진나라에 조회하지 않았음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그런데 『삼국지』는 준왕 이전은 기록하지 않고 대신 준왕이 건너간 지역이 한지(韓地)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한데 이어 준왕이 한왕(韓王)이 되었으며 『삼국지』 당시에는 이미 준왕의 후손이 끊어졌지만 아직 제사를 받든다고 했다. 이것은 삼국지가 한(韓) 지역의 정보를 새롭게 입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대별로 나타난 기자 전승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기자 전승의 시대별 변천

43) 박대재, 2011,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선사와 고대』 35, 120쪽.

44) 조원진, 2023a, 앞 논문, 24-29쪽 ; 조원진, 2023b, 앞 논문, 115~119쪽.

연번		기자 동래	기자 현지 교화	고조선 왕	기자-조선 왕 관련성	준왕 남천 지역	남천지역 동향
E-1	『사기』	○					
E-2	『한서』	○	○				
E-3	『잡부론』			한서 조선후, 부왕, 준왕	?	해중(海中)	
E-4	『위략』			조선후, 부왕, 준왕	?	해중(海中)	
E-5	『삼국지』	○	○	준왕	○	한지(韓地)	준왕 후손 끊어짐, 제사 받드는자 있음

<표5>에서 보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위만 이전 고조선 기사가 점차 풍부해지며 기자 전승도 이와 연결시켜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전한대 『사기』(E-1)는 기자가 조선에 갔다는 막연한 인식을 보여주며 위만 이전의 고조선에 대한 사료는 단편적이다. 후한대 『한서』(E-2)는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현지인을 교화한 기사가 나타나며 『잡부론』(E-3)은 위만에게 밀려난 고조선의 통치지에 대한 정보가 처음 나타난다. 위진대 이르러 『위략』(E-4)에는 고조선의 왕으로 조선후, 부왕, 준왕의 기사가 새롭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과 기자와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으며 준왕이 남천한 곳은 해중으로 막연하게 기록되고 왕래가 없었다는 서술과 함께 남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정보가 없다. 반면 『삼국지』(E-5)는 고조선 왕중에서 마지막 왕인 준왕의 행적만을 기록하는데 준왕의 남천 지역이 한지(韓地)이며 준왕 이후의 한(韓) 사회 현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삼국지』가 『위략』에 많이 의거하였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것이다.⁴⁵⁾ 『삼국지』는 기자와 준왕 및 그 이후를 다루고 있으며 『위략』은 대부분 그 중간 시대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문헌은 내용상 서로 보충되면서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어 보급되어 왔다.⁴⁶⁾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조선의 통치자를 기자와 연관시킨 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4. 기자조선설의 형성과 그 배경

먼저 『위략』이 기자와 조선을 연결시켰다고 볼 수 있는 기사는 한구절 뿐이다. 『위략』의 해당 기사 첫구절이 ‘석기자지후(昔箕子之後)인 것으로 보아 그 앞에 기자와 고조선에 관한 별도의 조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⁷⁾ 하지만 기자와 관련된 자체적인 전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일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기자 기록이 있었다면 『삼국지』에서 언급이 있을 것이다.

『위략』의 기록에서 조선의 통치자를 기자와 연결시킨 유일한 구절은 ‘석기자지후조선후

45) 江畑武, 1989, 「箕子朝鮮開國傳承の展開 : 『漢書』·『魏略』·『魏志』を中心に」,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學編』 25(1-3), 39~40쪽.

46) 강석준·홍희유, 1961 「소위 《기자 동래설》에 대한 비판」, 『역사과학』 4, 10~11쪽.

47) 오강원, 2012, 앞 논문, 162쪽.

(昔箕子之後朝鮮侯)’이다. 여기서 ‘기자지후(箕子之後)’를 ‘기자의 후예’로 해석하면 ‘기자-조선후-부왕-준왕’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지후’는 ‘기자 이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⁴⁸⁾ 이에 ‘기자지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지후(之後)’의 용례를 『삼국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표5> 『삼국지』의 ‘지후(之後)’ 용례

연번	출처	내용	之後 의미
E-1	『三國志』 卷1 魏書1 武帝紀 第1	太祖武皇帝 沛國譙人也 (...) 漢相國參之後 태조 무황제는 패국(沛國) 초현(譙縣) 사람이다. (...) 한 상국(漢 相國) [조]참(參)의 후예이다.	후예
E-2	『三國志』 卷1 魏書1 武帝紀 第1	吾起義兵 (...) 吾百年之後何恨哉 “내가 의로운 군사를 일으킨 것은 (...) 내 백 년 후에 무엇이 한스럽겠는가!”	후에
E-3	『三國志』 卷1 魏書1 武帝紀 第1	賊破之後 諸將問其故 적을 깨뜨린 후에 모든 장수들이 그 까닭을 물었다.	후에
E-4	『三國志』 卷1 魏書2 文帝紀 第2	故吾營此丘墟不食之地 欲使易代之後不知其處 “이런 이유로 나는 구릉 중에서 식물을 심을 수 없는 땅을 택하여 분묘를 만들고 대가 바뀐 후에 그곳을 알지 못하길 바란다.”	후에

<표5>에서 보는 것처럼 ‘지후(之後)’의 의미는 ‘후예’(E-1) 또는 시간 경과를 의미하는 ‘후에’(E-2-4)로 사용된다. 결국 ‘기자지후(箕子之後)’는 ‘기자의 후예’와 ‘기자 이후’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가 칭왕을 하며 주왕실을 받들겠다고 한 것은 기자의 존재를 염두해두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부분은 윤색된 부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자료에도 기자와 조선후를 연결시켰는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또한 『삼국지』 한전에는 준왕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기자와 관련된 구절은 없다. 따라서 『위략』이 인용한 기자 기록의 원본은 기자와 조선후의 직접적인 연결 내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조선후-부왕-준왕의 계보도 원래 기자와는 관련 없는 자체 전승으로 이 자료가 『위략』의 원자료나 『위략』에서는 기자 전승 서술 후 ‘箕子之後’라 하고 이어서 소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 조선후나 준왕 자료가 소개되었을 때는 이들을 기자의 후손으로 보았던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위략』은 조선과 관련된 기록을 모으면서 기자동래설을 소개하고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선후 기사를 이어서 서술했을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삼국지』의 기자와 준왕을 연결시킨 기록은 예전의 기사가 유일하다. 즉 『삼국지』 예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가서 금법팔조를 행한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40여 세를 지나 조선후 준이 왕을 일컬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기자와 준왕을 연결시킨 이러한 내용은 앞선 『위략』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략』에 의하면 조선의 통치자가 왕을 칭한 것은 전국시대 연나라와 대립하던 기원전 320년 경이기 때문에 준왕이 왕을 칭했다는 『삼국지』의 기록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기록을 간략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전거

48) 鄭寅普, 「五千年間 朝鮮의 ‘얼’」, 『東亞日報』 1935년 1월 29일~31일, 1935 ; 정인보, 1946, 앞 책, 57~63쪽.

자료의 차이 때문인지는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⁴⁹⁾ 일찍이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어환의 『위략』은 낙랑한씨 위계보에 근거하여 기자의 자손에 대해 기록하면서 『삼국지』 및 배송지주의 기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⁰⁾ 나아가 조선후를 기자와 마지막 준왕을 연결시키기 위해 어환이 창출해낸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⁵¹⁾ 그러나 조선후에 대한 기록은 당시 연나라와 대립하던 생생한 역사적 실체가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어환이 임의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윤색된 구절이 있더라도 『위략』의 사료적 가치와 구체적인 실체가 기록된 조선후와 부왕, 준왕의 역사성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만일 기자부터 준왕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있었다면 『위략』에 조선후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점과 기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다면 과연 『위략』·『삼국지』 당시 낙랑 호족들은 본인들을 기자의 후손으로 생각했으며 계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 기자조선설을 통해 고조선의 왕들을 기자의 후예로 보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낙랑 사회의 호족 중에는 기자의 후손을 자칭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낙랑군이 고구려 미천왕에게 쫓겨난 이후의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낙랑군내 토착세력중에서 한씨(韓氏), 왕씨(王氏)집단⁵²⁾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만조선-한나라의 전쟁 과정에서 한나라에 투항하는 한음(韓陰)과 왕협(王峽)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위만조선 시대에 이미 ‘왕(王)’ 씨와 ‘한(韓)’ 씨인 고위관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후 상 한음(相 韓陰)은 적저후(荻苴侯)로 봉해진다. ‘한(韓)’이라는 성씨를 근거로 중국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미 고조선에 한씨가 확인되기 때문에 성만으로 중국계 이주민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⁵³⁾ 장군(將軍) 왕협(王峽)은 전쟁이 끝나고 평주(平州)에 봉해졌으나 제후가 된지 1년만에 죽고 후사가 없어 나라는 없어졌다. 상과 장군 왕협이 한에 투항하였을 때 그는 나머지 투항자에 비해 훨씬 많은 1,480호의 봉호를 받았다. 장군 왕협이 상(相)이 아니었는데도 상보다 더 많은 봉호를 받은 것으로 보아 왕실 직속 부대의 장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⁵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통치자가 한씨라는 사실은 이미 후한시대에 편찬된 『삼부론』에서 확인된다(A-5). 이때만해도 한씨와 기자는 연결되지 않았다. 즉 이미 기자동래설과 무관하게 위만 이전 고조선의 통치자를 한씨로 보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후대의 일이지만 청주한씨는 기자의 후예로 알려졌는데 고려시대까지는 청주한씨의 연원이나 시조와 관련하여 ‘기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고려사』 열전에서는 오히려 ‘한강’을 중요한 인물로 설정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가 되어서야 청주한씨는 자신들이 우수한 가문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 가문의 내력의 뿌리를 ‘기자’에 연결시킨 것으로 이해된다.⁵⁵⁾ 이러한 사례는 과연 낙랑군시대에 한씨가 기자의 후손이라 확고하게 생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49) 박대재, 2016, 「기자조선과 소중화」, 『한국사학보』65, 16~17쪽.

50) 今西龍, 1922, 앞 논문(1937, 앞 책, 131~174쪽).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도 『삼국지』 한전의 기록은 낙랑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한씨가 자신의 조상을 기자와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았다(田中俊明, 2005, 「『魏志』東夷傳の韓人と倭人」, 『(古代を考える) 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1~12쪽).

51) 江畑武, 1989, 앞 논문, 38~39쪽.

52)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53쪽.

53) 노태돈, 2000, 「위만조선의 정치구조」,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출판사, 114쪽.

54) 노태돈, 2000, 「위만조선의 정치구조」,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출판사, 104쪽.

55) 김병인, 2019, 「청주한씨 ‘기자후예설’ 재검토」, 『한국사학보』 74.

왕씨(王氏)의 경우 왕경(王景)의 사례처럼 일찍이 중국에서 이주한 한인(漢人) 가문이 확인된다. 하지만 ‘토인(土人)’으로 표현된 왕조(王調)⁵⁶⁾의 경우처럼 왕씨라도 토착 주민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평양과 황해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낙랑 관련 명문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성씨는 한씨와 왕씨이기도 하다.⁵⁷⁾ 최근에는 낙랑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무덤인 세형동검문화 계통의 목곽묘를 토착세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⁸⁾ 이러한 모습은 낙랑 지역 토기와 낙랑 칠기에서도 확인되어 최소한 낙랑군 설치 초기의 낙랑 지역 문화는 漢文化 보다는 위만조선의 문화적 영향이 강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씨와 왕씨는 위만조선 시기부터 낙랑시대에도 서로 통혼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며 기자의 후손이라는 동종 의식을 가지며 세력을 유지했던 토착세력으로 볼 수 있다.⁵⁹⁾

낙양에서 출토된 묘지명중에는 낙랑왕씨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된다.⁶⁰⁾ 특히 낙랑 출신 북위 시대의 왕정묘지명(王禎墓誌銘)과 왕기묘지명(王基墓誌銘)에는 낙랑 왕씨가 기자의 후손이라 기록되었다.⁶¹⁾ 이를 통해 북위시대에 낙랑 왕씨들은 기자의 후손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낙랑 왕씨가 낙랑군 존속 당시에도 자신의 조상으로 기자를 표방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낙랑 관련 명문 칠기 등에서 한씨나 왕씨에 대한 기록이 많이 찾아짐에도 기자와 연관된 유물은 전혀 출토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낙랑한씨나 왕씨 가문에서 선조로서의 기자에 대한 의식이 대두되었다 할지라도 이 시기 자신들의 가문을 기자와 적극적으로 연결시킨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낙랑왕씨는 6세기초 북위나 북주에서 왕실 계통 인물과 통혼을 하게 됨에 따라 자신들의 가문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묘지명에 기자의 후손임을 표방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즉 낙랑왕씨가 본인들을 기자의 후손이라 대외적으로 내세운 것은 『위략』·『삼국지』 당시가 아니라 훨씬 이후의 일이다.

결국 『위략』의 조선후~준왕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기자와 무관하게 전해지던 자체 전승이었는데 기자동래설이 확산되며 기자의 후손으로 윤색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진수가 『삼국지』에서 조선후와 부왕에 대해서 생략하고 마지막 왕인 준왕만을 기자와 연결시킨 것도 조선후와 부왕을 기자와 연결시킬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삼국지』 예전에서 기자 이후 40여세가 지나 준왕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것처럼 40여세에 이르는 계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기자부터 준왕까

56) 『後漢書』 卷76, 循吏列傳 第66, "更始敗 土人王調殺郡守劉憲 自稱大將軍樂浪太守 建武六年 光武遣太守王遵將兵擊之"

57) 전진국, 2020, 「위만조선과 낙랑의 성씨」, 『한국계보연구』 10, 30~37쪽.

58) 尹龍九, 1990, 「樂浪前期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 정인성, 2013, 「衛滿朝鮮의 鐵器文化」, 『백산학보』 96 ; 한수진, 2014, 「낙랑군의 분묘」, 『낙랑고고학개론』, 진인진.

59) 정운용, 2016, 「樂浪 關聯 墓誌銘에 보이는 箕子 繼承 意識」, 『한국사학보』 65, 149~154쪽.

60) 平城과 낙양 등에서 새로 출토된 樂浪王氏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최근 다음 연구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윤용구, 2021, 「북위대 낙랑·고구려계 이주민 : 평성 출토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17.

61) 韓國古代社會研究所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583~592쪽 ; 尹龍九, 1995, 「樂浪遺民의 墓誌 二例」, 『仁荷史學』 3.

62) 정운용, 2016, 앞 논문, 151~159쪽.

지 41대의 계보가 확인되지만 이는 훨씬 후대의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삼국지』 편찬 당시에도 그러한 계보가 있었는지 아니면 진수가 임의로 언급한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40여세라는 숫자는 기자와 동시대인 무왕부터 주 마지막왕인 38대 혜공(惠公)과 진 4대 및 준왕과 동시대인 한고조 유방까지를 계산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⁶³⁾ 하지만 진수가 임의로 넣었을 가능성보다는 40여대라는 고조선 내부의 자체적인 계보가 있었는데 진수가 기자의 후손인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사기』 오태백세가 기록이다. 여기에는 태백부터 수몽까지의 오나라 왕실의 세계가 기록되었는데 가장 이른 4대 인명에는 백(伯), 중(仲), 숙(淑), 계(季) 등의 주나라식 호칭을 갖고 있지만, 이 뒤부터 수몽까지 15대 왕들의 이름은 주나라의 이름 붙이는 풍습과 관련이 없다. 이것은 주나라 사람들의 앞의 4대 계보를 이 지역 지도층 가족이 원래 갖고 있던 15대 계보 위에 덧붙여 올려놓은 것으로 이해된다.⁶⁴⁾ 마찬가지로 40여대의 계보 역시 준왕까지 고조선 역대 계보가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 예전(C-3)은 『위략』이나 이전 기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삼국지』 예전은 범금팔조 기사와 조선후 준의 칭왕, 燕·齊·趙 유이민 이주와 위만의 집권, 위만조선 멸망과 한사군 설치라는 역사적 전개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전승이 추가되었다기 보다는 주로 기존 자료를 요약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지』 예전은 『한서』 지리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범금팔조를 기자 자신이 작성하여 교화했다고 전하며 『한서』 지리지 보다 더욱 기자 교화를 강조하였다.⁶⁵⁾ 준왕 기사에서도 『위략』에서는 위만이 준왕의 배려를 받아 고조선에 정착하는 과정 등 고조선 관련 기록이 준왕의 고조선 세력의 입장에서 서술된 반면 『삼국지』는 조선후 준의 칭왕을 참람한 행위로 평가하는 등 漢 史家の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⁶⁶⁾ 이처럼 『삼국지』 찬자는 범금팔조를 기자가 만든 것으로 기술하는 등 기존 자료를 요약하며 윤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볼 때 범금팔조 기사에 이어서 ‘기후사십여세(其後四十餘世)’라는 구절은 기자와 준왕과 연결시키기 위해 『삼국지』 찬자가 인위적으로 넣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기자가 준왕을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후한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말기(147~189)에는 후한이 큰 혼란에 빠졌고 한예가 강성해졌다. 낙랑군은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낙랑군 군민 다수는 한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공손씨가 요동 지역을 점거하고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했지만 사마의에 의해 토벌되었다. 조위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비밀리에 바다를 건너 평정한다. 하지만 한군현은 마한 제국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자 대대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였고 기리영전투에서 대방대수 궁준이 전사할 정도로 격화되었다. 한전에서 마한지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결과로 한과 예를 ‘토벌했다’거나 2군이 마침내 ‘한을 멸망시켰다’고 할 정도로 매우 격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⁷⁾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한전을 편찬할 당시 마한에 대한 불만과 함께 중국 군현의

63) 강석준·홍희유, 1961 「소위 《기자 동래설》에 대한 비판」, 『력사과학』 4, 12~13쪽.

64) 왕명가(이경룡 역), 2008, 앞 책, 386~387쪽.

65) 江畑武, 1989, 「箕子朝鮮開國傳承の展開 : 『漢書』·『魏略』·『魏志』を中心に」,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學編』 25(1-3), 39~40쪽.

66) 김남중, 2016, 「箕子전승의 형성과 단군 신화에의 편입 과정」, 『韓國史學報』 65, 107쪽.

67) 『三國志』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

통제와 영향력에서 이탈하는 세력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⁶⁸⁾ 이는 한 지역으로 내려온 준왕을 기자와 연결시켜 중국과 삼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이 지역에 대한 전통적인 연고를 강조하려는 현실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⁶⁹⁾ 진한에 대해 『삼국지』 한전은 중국과 이질적인 사회로 묘사하는 『위략』과 달리 진한이 진인(秦人)·낙랑과 관련있다고 서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⁷⁰⁾

또한 『삼국지』 동이전의 성립 배경에는 진수의 후견인인 장화(張華)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화의 저서인 『박물지(博物志)』에는 기자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물지』의 해당 기사는 오탈자가 심하지만 “기자가 조선에 거하다가 이후 바다로 들어가 선국(鮮國)을 세웠다.”⁷¹⁾고 한다. 이 기사는 『박물지』(B-5)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위만에게 밀려난 마지막 통치자가 간 곳을 ‘해중(海中)’이 아닌 ‘선국’으로 기록한 것과 이를 기자와 연관시킨 점은 다르다. 여기서 ‘준왕’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장화가 고조선 통치자를 기자와 연관시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인식은 진수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서진대 기자와 고조선 마지막 통치자를 연결시키는 인식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삼국지』는 고조선의 왕을 본격적으로 기자와 연결시킨 첫 기록이 된다. 이를 통해 기자부터 준왕까지 40대의 계보가 이어진 것처럼 인식되며 위만 집권 이전의 조선을 ‘기자조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기자조선설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낙랑 현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자조선설이 더욱 확장되고 현지의 고유 전승도 기자와 관련된 전승으로 윤색되어 갔을 것이다. 이에 낙랑한씨·왕씨를 중심으로 기자에 대한 신앙이나 자신들을 기자의 후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나타났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식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중국정사에서는 『삼국지』 단계부터 기자조선설이 형성되어 정착되어 갔지만 당시 낙랑 사회에서는 신앙을 중심으로 기자 인식은 제한적으로 형성되었으며 특정 가문의 기자 계승의식이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낙랑왕씨가 기자의 후예임을 표방한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며 국내에 기자조선설이 정착되는 것은 성리학이 도입된 고려 후기 이후의 일이다.⁷²⁾

5. 맺음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전승은 위만조선이 한무제에 의해 무너진 전한시대에 처음으로

遂屬帶方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68) 문창로, 2017, 앞 논문, 185~186쪽.

69) 문창로, 2017, 앞 논문, 166쪽.

70) 김남중, 2018, 앞 논문, 140~150쪽.

71) 『博物志』 卷9 雜說 上, “箕子居朝鮮 其後伐燕 之朝鮮 亡入海爲鮮國”

72) 조원진, 2015, 「高麗時代의 箕子 認識」, 『한국사학사학보』 32, 201~207쪽.

등장한다. 그리고 후한시대에는 낙랑조선 현지의 풍습과 위만에게 밀려난 이전 고조선의 통치자가 韓氏라는 새로운 전승이 알려진다. 하지만 이때는 현지의 범금팔조나 고조선의 통치자를 기자와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조선지역을 기자가 교화시켰음을 전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위말(魏末)~서진초(西晉初)가 되면 기자 전승은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 『위략』에는 준왕과 기자를 직접 연결시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략』의 기록에서 조선의 통치자를 기자와 연결시킨 유일한 구절인 ‘기자지후(箕子之後)’는 ‘기자 이후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략』 단계는 아직 기자조선설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략』 기사는 조선의 자체 기록이며 준왕의 남천 이후의 정보는 없다.

『삼국지』는 한전에서 준왕의 남천 이후 한(韓) 사회를 다루고 있어 『위략』 이후 새로운 자료가 입수되었음을 알려준다. 예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가서 금법팔조를 행한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40여 세를 지나 조선후 준이 왕을 일컬었다고 기록했다. 『삼국지』 찬자는 범금팔조를 기자가 만든 것으로 기술하는 등 기존 자료를 요약하며 윤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볼 때 범금팔조 기사에 이어서 ‘그후사십여세(其後四十餘世)’라는 기자와 준왕과 연결시킨 구절은 『삼국지』 찬자가 인위적으로 넣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삼국지』는 고조선의 왕을 본격적으로 기자와 연결시킨 첫 기록이 된다. 이를 통해 기자부터 준왕까지 40대의 계보가 이어진 것처럼 인식되며 위만 집권 이전의 조선을 ‘기자조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기자조선설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자조선설의 형성에는 한(韓) 사회의 성장과 진수의 후견인 장화의 기자 인식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舊唐書』, 『博物志』, 『三國志』, 『易林』, 『潛夫論』, 『漢書』, 『後漢書』

2. 저서

동북아역사재단, 『역주 중국정사 동이전』 1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 2019, 『역주 고조선 사료집성(중국편)』, 새문사

서영수 주편, 1987, 『中國正史朝鮮傳 譯註』 1, 국사편찬위원회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윤내현, 1986, 『韓國古代史新論』, 일지사

이병도, 1985, 『韓國古代史研究』(수정판), 박영사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 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의 檢討』, 일조각

鄭寅普, 1946, 『朝鮮史研究(上)』, 서울신문사

천관우,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일조각

韓國古代社會研究所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三上次男, 1966,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苗威, 2019, 『箕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왕명가(이경룡 역), 2008,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동북아역사재단

3. 논문

김경호, 2013,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金延鶴, 1975, 「魏志 韓傳 小考」, 『문리과대학 논문집』 14

김남중, 2018, 「『魏略』 韓傳의 특징과 『三國志』·『三國史記』와의 관계 - 박씨왕 초기 신라의 대외 관계 이해를 위한 사료 검토 -」, 『한국고대사탐구』 28

김남중, 2021, 「위만조선의 멸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왕검성의 소멸과 조선현의 中心地化와 관련하여-」, 『고조선단군학』 46

김병인, 2019, 「청주한씨 ‘기자후예설’ 재검토」, 『한국사학보』 74

노태돈, 2000, 「위만조선의 정치구조」,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출판사

문창로, 2017, 「『삼국지』 한전(韓傳)의 ‘삼한(三韓)’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55

문창로, 2018, 「『삼국지』 한전의 王號와 그 실상」, 『한국학논총』 50

박노석, 2011, 「『삼국지』위서 동이전의 정보 출처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 38

박대재, 2002, 「삼국지 韓傳의 辰王에 대한 재인식」, 『한국고대사연구』 26

박대재, 2011,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선사와 고대』 35

박대재, 2016, 「기자조선과 소중화」, 『한국사학보』 65

서영교, 2018, 「『三國志』 『魏略』의 ‘斯羅國’과 『魏書』의 ‘斯羅’ -6세기 초 羅濟同盟의 향방과 관련하여-」, 『역사학연구』 59

신현웅, 2003, 「『삼국지』 한전 기록의 실재」, 『한국고대사연구』 32

신현웅, 2004, 「삼국지 한전 기사의 판독 -민족지적 기록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1

신현웅, 2005, 「『三國志』 韓傳 記事의 判讀—정치관계 기록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25

신현웅, 2008, 「『翰苑』 三韓傳과 『魏略』의 逸文(1) -『한원』 인용문 분석과 검토-」, 『신라문화』 32

오강원, 2012, 「『삼국지』 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 『정신문화연구』 128

尹龍九, 1995, 「樂浪遺民의 墓誌 二例」, 『仁荷史學』 3

尹龍九, 1998,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 14

윤용구, 2008, 「『삼국지』 부여전의 문헌적 검토,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윤용구, 2010, 「『三國志』 판본과 「東夷傳」 교감」, 『한국고대사연구』 60

윤용구, 2019, 「『삼국지』와 『후한서』 韓傳의 ‘辰王’ 이해 -出土文獻와 傳存文獻의 字句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92

윤용구, 2023, 「『삼국지』·『후한서』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 111

이성규, 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전진국, 2019, 「삼국지 한전에 기술된 한반도 중부 지역」, 『역사와 담론』 92
전진국, 2020, 「위만조선과 낙랑의 성씨」, 『한국계보연구』 10
정운용, 2008, 「中國 正史 4史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認識」, 『선사와 고대』 29
정운용, 2016, 「樂浪 關聯 墓誌銘에 보이는 箕子 繼承 意識」, 『한국사학보』 65
주보돈, 2013, 「三韓 관련 基本史書의 문제」,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조원진, 2015, 「高麗時代의 箕子 認識」, 『한국사학사학보』 32
조원진, 2023a,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9
조원진, 2023b, 「『漢書』의 古朝鮮·漢郡縣·箕子 자료에 대한 검토」, 『동양학』 92

강석준·홍희유, 1961 「소위 《기자 동래설》에 대한 비판」, 『력사과학』 4

江畑武, 1989, 「箕子朝鮮開國傳承の展開 : 『漢書』·『魏略』·『魏志』を中心に」,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學編』 25(1-3)
今西龍, 1922, 「箕子朝鮮傳説考」, 『支那學』 2卷 10·11號(1937,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田中俊明, 2005, 「『魏志』東夷傳の韓人と倭人」, 『(古代を考える) 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吳銳(강길중 역), 2019, 「기자조선과 동북아 역사」, 『동북아 민족문화의 재발견』,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鄭春穎, 2008, 「《魏志·高句麗傳》与《魏略·高句麗傳》比較研究」, 『北方文物』 4

조원진, 『魏略』·『三國志』를 통해본 기자조선설의 형성에 관한 토론문

김남중(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조원진 교수님께서서는 최근 기자조선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며, 오늘 논문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 논문은 후한 및 위·진 시대 기자조선설 성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조선인을 교화를 하였다는 기자동래설과 기자의 후손이 조선의 왕위를 이어나갔다는 기자조선설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3세기 후반에 작성된 『삼국지』 찬자의 기존 자료에 대한 윤색의 결과로 위만 이전의 고조선을 기자조선으로 이해하는, 즉 기자조선설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기자가 고조선의 왕이며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설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의 시조라는 전승과 상반된다는 점, 기자와 고조선의 관계는 위만조선 멸망 무렵인 진한 중기 무렵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음은 인정되는 바입니다. 중국 사서에 실린 동방 여러 나라의 시조 전승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사서에 실린 것과 다른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소수 몇몇 사람이 말한 내용일지라도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중국 기록에 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자조선설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기자가 고조선 지역으로 왔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조선설이 성립된 데에는 낙랑 지역으로 이주한 漢人들과 親漢的 성향을 지닌 낙랑의 지도급 인사들의 역할이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든 출세를 위해 지배자의 비위를 맞추려 행동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며, 고조선 왕실의 시조를 기자라 말하는 것도 그런 상황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1. 기자동래설과 기자조선설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거나(『사기』 송미자세가) 기자가 조선으로 가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상서대전』) 것은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자동래설은 곧 기자조선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한서』의 기자 교화도 결국 기자가 한 개인으로 낙랑 조선 사회를 교화했다기보다는 조선의 왕으로써 낙랑 조선 백성을 교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漢人들이 기자가 왕이 아닌 한 개인으로 낙랑 조선 백성을 교화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국지』의 기록은 위만 이전 고조선의 왕인 준왕의 가계를 기자와 연결시켰다는 점이 앞선 사서와 차이를 지니는 것입니다. 굳이 기자에 대한 이전 설과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준왕기자후손설’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핵심은 기자동래든 기자조선이든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漢人들인가 토착 고조선인들인가 하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낙랑군 안에는 이주 漢人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원 4년 현별 호구부’에 의해 낙랑군에 漢人은 14% 정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漢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였을 것이므로, 전한대 기자 이야기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기자조선설은 실제 고조선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성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3세기경에 쓰인 『위략』, 『삼국지』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고조선 왕으로 언급되는 준왕을 기자와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이 무렵에는 낙랑군 내에 있던 준왕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기자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인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위략』, 『삼국지』 등을 통해서는 기자동래설에서 기자조선설로의 전환이 아니라 기자조선설에서 준왕기자후손설로 확대된 배경을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기자조선설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것이 낙랑 현지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3세기 무렵(?) 기자와 관련된 전승이 윤색되어 갔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조선 사회에 기자조선설 확산 시기를 늦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2세기에 이미 중국 사회에서는 낙랑(조선)과 기자의 관계는 널리 인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3쪽에서 응소의 주석을 소개하였는데, 후한 말에 활동하였던 응소는 『풍속통의』에서 鮮于氏에 대해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여 그 후손들이 조선을 식읍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씨로 삼았다”(『後漢書』 권41, 列傳31, 第五鍾離宋寒列傳, “倫少介然有義行 … 倫始以營長詣郡尹鮮于褒[風俗通曰 武王封箕子于朝鮮其子食采於朝鮮 因氏焉] 褒見而異之 署爲吏)고 하였습니다. 선우씨의 鮮이 조선의 鮮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입니다. 165년에 제작된 鮮于璜碑의 명문(君諱璜 字伯謙 其先祖出于殷箕子之苗裔)에 보면 선우황을 은나라 기자의 후예로 적고 있습니다. 2세기에 중국 내에서는 선우씨가 기자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응소는 그러한 선우씨의 성씨가 조선과 관련하여 생겼다고 한 것으로, 이는 조선이 기자의 봉읍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최소한 2세기경에 중국 내에서 조선과 기자의 관계는 이미 불변의 진리처럼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토착 고조선인들도 그렇게 여겼을 것인가라고 봅니다.

후한 시대에는 낙랑 출신으로 중앙 고관이 된 인물이 확인됩니다. 기자와 조선의 관계가 무관하다면 무관하다고, 관련 있다면 그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낙랑에 군현이 설치되고 관리가 파견되기 시작한 지도 수백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기자와 조선의 관계를 중국 내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자조선설을 몇몇 문서를 보고 사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낙랑과 관련된 인물과의 대화, 낙랑군에서 작성된 문서 등이 3세기 사서에서 기자조선설 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랑군 시기에 기자조선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세져간다는 문제점은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史家들에 의해 윤색이 되었다는 주장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다양한 자료를 모아 사실을 기록하려는 태도를 지닌 경우가 많은데, ‘史家の 윤색’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해당 사서 전체의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수가 자의적으로 윤색을 가하여 『삼국지』를 저술하였다면 『삼국지』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역사 연구에 이용하는 것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 본인이 아

닌 사가가 이용한 전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漢代에도 지방관들이 자신의 통치 지역의 풍요함을 제시하기 위한 서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箕子之後’를 『삼국지』 용례를 통해 ‘기자 이후’로 해석하였는데, 제시된 용례로 볼 때 한계가 보입니다. ‘사건+之後’에서는 ‘~ 이후’로 볼 수 있으나 ‘사람+之後’에서는 제시된 용례도 그렇고 ‘~ 후에’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합니다. 용례를 통해 ‘~ 이후’라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之後’의 사례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용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낙랑의 王氏를 토착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王調에 대해 土人이라 표현했다고 해서 토착 고조선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낙랑의 土人에는 일찍이 고조선 지역으로 망명해 온 漢人들도 포함됩니다. 낙랑 지역에서 조사된 목곽묘의 경우도 세형동검 등 토착계 문물이 조사되기는 하나 대다수는 철기, 칠기 등 중국계 문물이 조사되며 토착계 문물은 일부 무덤에서 몇 점 나오는 정도입니다. 낙랑 지배층의 다수는 중국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王景의 경우처럼 이주 漢人의 후손 중에는 2천석 이상의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진실묘 등은 이주 漢人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주 漢人들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낙랑 사회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데 관심을 보일 만하기 때문에 기자조선설의 확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고조선 왕실과 관련 있어 보이는 韓氏의 경우는 기자 후손 의식을 확고히 지니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5. 기자조선설이 국내에 정착된 것은 고려 후기 이후라고 하였는데, 최소한 고려 전기에 이미 평양을 기자의 도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합니다. 지광국사(984~1067)의 비에 보면 천희 5년(1021)에 서경의 중흥사에서 있었던 법회에서 국사가 ‘箕子古都’를 칭한 내용이 보입니다. 11세기 초에 이미 서경(평양)을 기자의 도움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7쪽에서 준왕의 후손들이 韓氏를 冒稱한 것에 대해 ‘거짓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약간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성씨를 바꾸는 것 자체를 거짓된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합니다. 다음으로 한씨 성을 쓴 이유가 중국처럼 한자로 성씨를 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본래 성씨가 없었는데 성씨를 붙인 것일 수도 있고, 토착 세력의 긴 성씨를 한 글자로 줄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자와 성씨가 달라진 배경을 제시하려고 冒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씨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정도로만 써도 뜻은 통할 것 같습니다.

高麗와 遼·金の 榷場貿易 推移와 性格

박정환(건국대)

1. 머리말
2. 榷場貿易의 형성과 확대
3. 高麗와 遼(契丹)의 각장무역
4. 高麗와 金(女眞)의 각장무역
5. 각장무역의 성격과 의미
6. 맺음말

1. 머리말

‘榷場’은 중국 宋代(960~1279)에 국가가 전매와 징세, 매매, 유통을 독점한 시장으로서 榷貨(전매물품), 榷鹽(전매소금), 榷酤(전매술)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각장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통제 아래 대외무역이 이루어진 국경시장 겸 교역장이었다.

송나라 건국 이전에 ‘互市’라 불린 무역체계는 전근대 중원왕조의 기미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 변경지역에 주변국 상인이 들어와 이루어진 육상무역과 교역 장소를 가리킨다. 漢代부터 魏晉南北朝代까지 호시는 국가의 통제 없이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졌지만 隋·唐代를 거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규정된 물품, 제한된 장소에서만 교역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당의 멸망으로 인해 호시는 관리되지 못하였고, 각기 자국의 영토에 각장을 설치하여 이루어지는 각장무역으로 대체되었다. 이 시대 송과 북방 정복왕조¹⁾들은 각장무역을 장려하였고, 고려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

각장무역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각장이라는 개념은 본래 중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로는 관계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북송과 요, 남송과 금, 송-요-금-서하 4국의 각장무역에 대한 연구가 있고,²⁾ 송-요 각장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雄州 각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각장무역의 경향을 분석한

1) ‘정복왕조’는 중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배한 비(非)한족 왕조를 부르는 말로 미국의 사회경제사학자인 칼 비트포겔(Karl Wittfogel)에 의해 명명되었다.
2) 王曉燕, 2004, 「論宋与遼, 夏, 金の榷場貿易」, 『西北民族大學報』, 西北民族大學; 曹小波, 2011, 「論南宋与金對峙時期淮河下游的榷場貿易」, 『南昌教育學院學報』 26, 渤海大學; 張重艷, 2013, 「北宋對遼榷場置廢及位置考」, 『宁夏社會科學院』 3, 河北省社會科學院歷史所; 許淑慧, 2015, 「宋遼“榷場”貿易考究」, 『蘭台世界』 11, 青海大學; 劉智博, 李秀蓮, 2019, 「金宋榷場貿易的歷史分期与特征」, 『山西大同大學學報』 33, 哈爾濱師範大學歷史文化學院.

연구도 있다.³⁾ 또한 한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각장무역의 추이를 고찰한 연구도 있다.⁴⁾ 한편 대국들에 못지않게 서하의 각장무역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서하의 榷場使(각장무역 실무자) 제도를 중심으로 무역을 고찰하거나⁵⁾ 黑水城에서 출토된 각장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서하의 상업과 대외무역, 공문서 양식 등을 파악하였다.⁶⁾ 하지만 중국의 연구자들은 주로 중원 지역의 교역 연구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려의 각장무역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고려의 각장무역은 『高麗史』, 『高麗史節要』, 『遼史』, 『金史』 등의 국내외 고려시대 관련 사료를 통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통합된 연구는 없었고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주요 연구들을 보면 요와의 각장무역이 부진했던 이유를 고려의 사무역 통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각장무역을 사무역으로 인식한 연구가 있고,⁷⁾ 宣宗 연간인 1080년대 요나라에 의해 벌어진 각장 재설치 문제를 중심으로 成宗代 지계획정 이후 압록강 동안의 영유권 갈등에서 비롯된 양국 분쟁의 외교적 해결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⁸⁾

이러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요의 각장 재설치 문제를 다루지만 여-요의 정치적 사안 외에 요나라의 기근 해결 시도였음을 설명한 연구도 있다.⁹⁾ 또한 金元交替期에 東眞國을 건국한 蒲鮮萬奴가 고려에 보낸 각장 설치 요청을 근거로 여-금 각장무역의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¹⁰⁾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는 고려와 정복왕조간의 각장무역을 고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거나 전반적인 동북아 각장무역 체제를 간과한 경향이 짙었다. 그러한 까닭에 일각에서는 화북 지역을 차지한 요·금 두 왕조의 내정과 대외교역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¹¹⁾

이처럼 고려와 요·금의 각장무역은 정치사 중심의 대외관계사 혹은 경제사의 흐름 속에서 소략하게 언급되는 연구의 객체로 다루어지면서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각장무역은 사무역, 관무역(공무역), 밀무역 등으로 분류되며 명확히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장무역을 연구의 주체로 설정하고 고려시대 국경무역의 가변성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중원에서 시작된 각장무역 체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되었고 중국에 고려에까지 확대된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송나라와 각장무역을 활발히 추진하던 요나라가 고려와 제1차 여-요 전쟁 결과 국교를 회복하면서 각장을 설치하

3) 楊帆, 2017, 「北宋雄州榷場初探」, 『廊坊師範學院學報』 33, 河北大學宋史研究中心河北保定.
 4) 程嘉靜, 2015, 「遼代榷場設置述論」, 『內蒙古社會科學』 36, 赤峰學院歷史文化學院.
 5) 左長纓, 2008, 「以榷場貿易爲主的西夏貿易」, 『寧夏社會科學院』 3, 寧夏文物考古研究所; 馮金忠, 2013, 「榷場的歷史考察兼論西夏榷場使的制度來源」, 『寧夏社會科學院』 3, 河北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6) 楊富學, 陳愛峰, 2009, 「흑수성에서 출토된 서하와 금의 각장무역 문서 연구(黑水城出土夏金榷場貿易文書研究)」, 『中國史研究』, 中國史學會; 張重艷, 2012, 「黑水城出土文書與絲綢之路」, 『寧夏社會科學院』 2, 河北省社會科學院歷史所.
 7) 이정희, 1997, 「고려전기 대외무역」, 『지역과 역사』 4.
 8) 이미지, 2003, 「高麗 宣宗代 榷場 문제와 對遼 關係」, 『한국사학보』 14.
 9) 류채영, 2005, 「고려 선종대의 대외정책 연구」, 한국문화연구 9.
 10) 박한남, 1996, 「12세기 여금무역에 대한 검토」, 『대동문화연구』 31.
 11) 이정신, 2009,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이강한, 2013, 「고려시대 대외교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화사학연구』 47.

고 무역을 시도한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1세기 중후반 여-요 각장 재설치 문제의 해결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요 각장무역이 추진은 되었지만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순탄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북방과 중원의 패자로 등장한 금나라와 고려의 각장무역을 다루면서 무역의 시작 시기, 각장의 위치 비정, 무역의 경향 등을 분석하여 이 시기 고려의 각장무역이 遼代와 달리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5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다룬 각장무역의 추이를 기반으로 무역의 특질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려의 ‘국경시장’과 ‘국경무역’이 지닌 성격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는 고려와 송·원 관계와 달리 ‘늘 낮선 영역’으로 취급되며 항쟁의 역사로 점철된 고려와 요·금 관계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權場貿易의 형성과 확대

각장무역을 설명하기에 앞서 중원왕조와 주변민족의 조공을 제외한 무역 전반을 지칭한 互市를 살펴보겠다. 호시는 전근대 동북아에서 간단한 물물교환에서부터 관에 세금과 통행세를 납부하는 방식, 관무역, 사무역 등의 상거래와 상호 간의 교역 장소를 가리킨다.¹²⁾ 명칭은 시대에 따라 關市, 交市, 胡市 등으로 불리기는 했으나 큰 틀에서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지녔다. 중국의 선진문물이 거래된 호시는 중원왕조가 주변 이민족을 회유하는 동시에 기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¹³⁾

漢代에는 변경 郡·國에 호시를 두고 南越, 西北單于, 鮮卑, 烏桓 등 주변민족과 교역을 했는데 별도의 담당관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가 隋代에 이르러 변경 州에 交市監과 副監을 두어 호시를 관리·감독하였다.¹⁴⁾ 『唐六典』 卷22 諸互市監에 의하면 당은 수의 호시를 계승하면서 담당관의 명칭을 互市監과 丞으로 바꾸고 金部司와 太府寺를 두어 호시 정책을 관리하는 등 변경 州·府의 교역을 전담하였다. 이는 당나라가 외국에 대해 개방적인 면을 보인 것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교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한 것이며 서북변경을 자주 침범하던 이민족을 효율적으로 기미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호시는 비상설화된 교역장으로서 주변국에서 먼저 교역을 요청하면 중원왕조가 이를 허락한 뒤 중국의 경내에 설치되었다.¹⁵⁾ 그런데 당나라에 이르면 호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경지역 50여개 州를 邊州로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시장이 열리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안사의 난을 계기로 위구르의 세력이 커지자 호시의 주도권은 이민족에게 넘어갔고 당 조정의 통제도 약화되었다. 唐末에 이르면 중앙정부의 약화와 함께 藩鎮 절도사가 호시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¹⁶⁾

12) 한지선, 2019, 「印度洋 貿易 네트워크상에서의 朝貢과 互市」, 『명청사연구』 52, 143쪽.

13) 정병준, 2010, 「唐代的 互市와 張保臯의 對唐交易」, 『중국사연구』 69, 215쪽.

14) 정병준, 2010, 「唐代的 互市와 張保臯의 對唐交易」, 『중국사연구』 69, 217쪽.

15) 유옥봉, 2011, 「당대(唐代)의 호시(互市)와 그 관리」, 『동국사학』 50, 461~464쪽.

16) 정병준, 2010, 「唐代的 互市와 張保臯의 對唐交易」, 『중국사연구』 69, 219쪽, 227쪽.

오랜 세월에 걸쳐 ‘선진문물의 전파’로 여겨진 호시는 10세기 당의 멸망과 더불어 정복왕조의 흥기와 중원을 통일한 송에 의해 각장무역으로 대체되었다.¹⁷⁾ 각장무역의 중심인 각장은 榷貨, 榷鹽, 榷酤 등과 같은 ‘국가독점’ 시장을 의미하였고, 구조적으로는 征榷(조세징수·전매)과 호시(시장·교역)가 결합된 형태였다. 송 조정은 이러한 국경시장 겸 교역장인 각장을 상설화하면서 전담기관인 榷易署를 설치하고, 현지에 榷務·榷署를 두었다. 나중에는 교역 화물에 대해 중앙 재정기관인 三司의 催轄司가 전담하기도 하였다.¹⁸⁾ 따라서 각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강력할 수밖에 없었다. 각장에서의 교역은 무역당사자 간에 직거래가 아닌 중개를 맡은 牙人을 두고 매매자로부터 중개료인 牙錢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관의 통제하에 물품가격이 정해지고, 관은 가치 있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일반상인이 아닌 官市者에 한해서 판매를 허가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민간의 私販 행위를 금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장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였다.¹⁹⁾

각장의 치안은 소재지 州縣의 巡檢과 都巡檢侍가 맡아 관리하였다. 송 조정은 이들이 각장을 지키는 것을 빌미로 국경 밖의 지인들과 각장에서 만나 교역하는 것과 미리 교역하도록 약속을 잡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015년 8월 ‘변방 각장을 돌며 지키는 병사는 반드시 주둔하는 병사를 채용해야지 그 주(소재지)의 군사를 채용하면 안 된다.’²⁰⁾라는 조칙을 공포하였다. 이 말은 각장무역에서 주현의 관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고 중앙 직속의 관리와 주둔군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었다. 당시 각장에서는 소재지 관청과 榷場指揮使가 결탁하여 교역 전반과 중개인의 상품 등급을 평가하여 매매를 독점하기도 하였다. 결국 송 조정은 각장의 투명한 상업행위를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 관청에서 발급해준 영업증명서인 ‘公據’를 발행하여 이것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각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송나라와 북방제국이 각장무역을 할 때 널리 사용되었다.²¹⁾

이처럼 각장무역은 교역장 설치, 감독관 임명, 금지품목 설정, 정부의 통제, 세부규칙의 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호시와 일부 유사했지만 큰 차이가 있었다. 호시는 기본적으로 중원 중심적 기미정책을 기반으로 했으나 10세기에 들어 중원 天子의 지위가 실추되고, 국가 간에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자 더 이상 주변국은 중원왕조의 호시체제를 따르지 않게 되었고 주변국 나름대로 교역의 주도권과 이윤을 가지고자 하였다. 또한 호시는 황제의 기준에서 주변국에 베푸는 ‘은혜’와 같은 개념인데 중원의 후당과 후진을 멸망시켜 요나라를 선포하고, 전연의 맹약으로 송나라를 굴복시킨 거란 입장에서 송의 호시를 따를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 요의 각장 설치를 시작으로 북방민족들은 변방에 각장을 두어 무역을 추진하였다. 이에 송나라는 각장에 전매권을 부여하면서 중원의 물자가 필요한 북방민족에 대해 통제를 가하기도 하였고, 전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방의 물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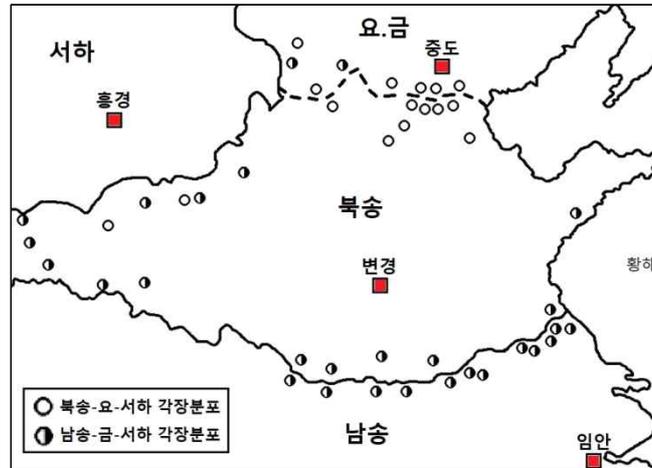
17) 본고에서 다루는 각장무역도 넓은 의미로서 호시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宋代 전후의 호시와 각장은 형태와 운영 면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개념을 분리하여 설명한다. 또한 『宋史』, 『遼史』, 『金史』 등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宋代에 간간히 보이는 ‘호시’는 ‘각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18) 『宋史』 卷186 食貨下8 互市舶法. “自治平四年, 其貨物專掌於三司之催轄司, 而度支賞給案判官置簿督計之.”

19) 서은미, 2016, 「요금시대(遼金時代) 차(茶)의 소비(消費)와 교역(交易)」, 『중국사연구』 102, 81쪽.

20) 『宋會要輯稿』 食貨38 互市. “沿邊榷場巡守軍健並須用駐泊兵士, 不得差本州軍人.”

21) 유나나, 2020, 『서하(西夏)의 실크로드 무역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1쪽.



<그림 1> 중원의 각장 분포도²²⁾

각장의 시초는 964년 송이 建安, 漢陽, 蕪口 등지에 교역장을 설치한 것이다. 당시 송 조정은 국경지역 주민 한정으로 교역을 허가했으며 상인들이 직접 도강하여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²³⁾ 상인의 경우 이들이 도강하여 상대국 변경에서 교역을 할 경우 전매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송 조정에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도강 금지로 인해 상인의 교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나 오랜 戰禍로 피폐해진 백성성들에게 기근을 극복하는 범위에서 교역이 허용된 것이다.²⁴⁾ 그러나 송나라는 민생이 안정되자 점진적으로 각장을 늘리고 상인의 교역을 허용하였다. 977년에 鎮州, 易州, 雄州, 霸州, 滄州 등에 각장을 증설하고 權務를 설치하여 香藥과 犀象, 茶를 교역하였다.²⁵⁾ 추가적으로 991년 靜戎軍, 代州, 鴈門 일대에 각서를 설치하여 요와의 교역을 관리하였다.²⁶⁾

요나라도 송의 각장 설치 추세에 맞춰 국경지역에서 교역을 시작하였는데 처음부터 재정 확보를 위한 대외무역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고 변경지역 민생을 위한 교역이었다. 983년 요는 하북과 산서 지역의 식량난으로 인해 민심이 혼란스러웠다. 이에 燕京留守司는 居庸關의 부세를 느슨히 하여 산서의 교역을 소통시키자고 하였다.²⁷⁾ 그리고 내수경제로는 변경지역의 식량을 해결할 수 없어 奇峰路를 열어 송과 접한 역주에 각장을 열었다.²⁸⁾ 이후 요는 1004년 전연의 맹약으로 송과 평화를 구축하면서 涿州, 振武軍, 朔州 등지로 각장무역을 확

22) 中國地圖出版社編著, 2012, 『中國歷史地圖冊』, 中國地圖出版社. ‘宋代 權場 分布圖’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23) 『宋史』 卷186 食貨下8 互市舶法. “乾德二年, 禁商旅毋得渡江, 於建安, 漢陽, 蕪口置三權署, 通其交易, 內外羣臣輒遣人往江, 浙販易者, 沒入其貨.”

24) 『宋會要輯稿』 食貨38 互市. “江北諸州縣鎮近聞自置權場禁人渡江以來, 百姓不敢漁樵, 又知江南仍歲飢饉, 自今除商旅依舊禁止外, 緣江百姓及諸監煎鹽亭戶等, 並許取便採捕, 過江貿易.”

25) 『宋史』 卷186 食貨下8 互市舶法. “太平興國二年, 始令鎮, 易, 雄, 霸, 滄州各置權務, 輦香藥, 犀象及茶與交易.”

26) 『宋史』 卷186 食貨下8 互市舶法. “淳化二年, 令雄霸州, 靜戎軍, 代州鴈門各置權署如舊制, 所鬻物增蘇木, 尋復罷.”

27) 『遼史』 卷60 食貨志下. “聖宗統和初燕京留守司, 言民艱食, 請弛居庸關稅, 以通山西糴易.”

28) 『遼史』 卷12 本紀12 聖宗耶律隆緒 8年 3月. “丙申, 詔開奇峰路通易州市.”

대하였다. 여기에 응하여 송은 雄州, 霸州, 安肅軍, 廣信軍에 각장을 개설하였다.²⁹⁾

중원의 각장무역은 계속 이어져 金代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었고, 금나라는 고질적인 재정 부족³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장으로부터 매년 많은 이윤을 얻고 있었다.³¹⁾ 그런데 금나라는 紹興和議를 맺었음에도 남송이 북송시절 요의 잔당과 내통하여 자국을 배반한 것을 크게 불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³²⁾ 각장이 변경 안보의 허점이 될 것을 염려하였다. 또한 淮水라는 큰 강 일대가 금과 남송의 국경이 되면서 밀무역이 성행하자 금 조정은 각장을 국경 관리의 거점으로 변모시켰다. 1191년 금 상서성은 사주 각장이 전부터 관의 방비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고 章宗에게 아뢰어 여러 각장의 관부 舍屋을 증수하고 關卡(稅關)을 감절로 설치하였다. 또한 場官과 提控(하급관리)에게 각장을 단속하도록 하고 提刑司가 살피도록 하였다.³³⁾

한편 송·요·금 사이에 있던 서하도 각장무역 체제에 편입되었다. 서하는 국제관계에서 藩國적 지위에서 교역을 전개하였다. 1004년 진연의 맹약 이후 송-요를 중심의 각장무역이 본격화되자 서하의 교역에서도 각장이 등장하였다. 송-서하 양국 간의 각장무역은 1007년 송이 保安軍에 각장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³⁴⁾ 송 仁宗 연간(1022~1063)에는 섬서 지역에 두 개의 각장(保安·鎮戎)을 설치하고, 代路에도 각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³⁵⁾ 송과 요는 각장을 정치적 사안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폐쇄하고 열기를 반복하였다. 그에 비해 송은 서하가 자국 경내에 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였다.³⁶⁾ 이는 자연히 송-서하 각장무역에서 송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필요시 서하에 대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었다.³⁷⁾ 그런데 각장의 관리와 책임은 전적으로 송나라에 있었고 서하는 따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다. 서하 상인이 실크로드에서 얻은 서역산 물품과 원료를 가지고 각장에 들어가면 그것이 필요한 송 상인과 다양한 물산을 거래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하는 송의 정책에 큰 불만 없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송, 요, 금, 서하는 각장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정치적으로도 적극 활용하였다. 송나라의 경우 육상무역 외에 해상무역으로 동남아, 인도 등과 교류하면서

29) 강길중, 2005, 「宋代 關稅의 徵收體系와 그 財政的 比重」, 『역사문화연구』 22, 150쪽.

30) 강준영, 「12세기 초엽 금(金)의 대(對)고려 관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1쪽. 제정난의 주요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건국초기부터 계속되는 대외전쟁, 둘째, 화북을 장악하면서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간 엄청난 전비 지출, 셋째, 자연재해에 따른 진흥과 사회대책 비용, 넷째, 제도개혁 중 작위의 남발과 관료수의 증가였다.

31) 『金史』 卷50 食貨5 榷場. “榷場, 與敵國, 互市之所也. 皆設場官, 嚴厲禁, 廣屋宇以通二國之貨, 歲之所獲亦大有助於經用焉.”

32) 『金史』 卷50 食貨5 榷場. “宋人喜生事背盟, 或與大石交通, 恐枉害生靈, 不可不備, 其陝西沿邊榷場可止留一處, 餘悉罷之, 令所司嚴察姦細, 前此, 以防姦細, 罷西界蘭州, 保安, 綏德三榷場.”

33) 『金史』 卷50 食貨5 榷場. “章宗明昌二年七月, 尙書省以泗州榷場自前關防不嚴, 遂奏定從大定五年制 官爲增修舍屋, 倍設闌禁, 委場官及提控所拘榷, 以提刑司舉察.”

34) 『宋史』 卷186 食貨下8 互市舶法. “西夏自景德四年, 於保安軍置榷場.” 송-서하 각장무역은 각장과 그 보다 규모가 작은 和市로 구분되어 있었고 송나라가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35) 『宋史』 卷186 食貨下8 互市舶法. “天聖中, 陝西榷場二, 并代路亦請置場和市.”

36) 『宋史』 卷485 外國1 夏國上. “大中祥符八年, 築堡于石州濁輪谷, 將建榷場, 詔緣邊安撫司止之.”

37) 강길중, 2005, 「宋代 關稅의 徵收體系와 그 財政的 比重」, 『역사문화연구』 22, 156쪽. 송 神宗 연간(1067~1085)에 각장을 폐하자 서하의 비단가격이 폭등하고 遊離乞食하는 백성들이 많아졌으며 牛馬가 폐사하는 등 손실이 막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하에 대한 압박은 훗날 금나라도 이어받아 수시로 각장을 置廢하였다.

많은 재정을 확보했지만 북방제국은 국가재정을 전적으로 육상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육상무역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무역과 달리 운송환경과 운송수단, 비용, 인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물동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보다 많은 지역에 각장을 개설하여 손실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요·금은 송과 서하뿐 아니라 고려와의 국경에도 각장을 설치하여 교역을 시도하였다.

3. 高麗와 遼(契丹)의 각장무역

1) 고려와 요의 각장 설치와 철폐

고려와 요³⁸⁾의 외교는 918년 6월 고려가 건국되고 922년 요가 낙타와 모직물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요 太宗은 937년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경축하며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³⁹⁾ 고려 太祖는 발해를 멸망시킨 요나라를 ‘신의가 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국교를 단절하였다.⁴⁰⁾ 이후 고려는 바다 건너 송과 가깝게 지내며 요나라로 하여금 협공의 위기를 느끼게 하였고 993년 제1차 여-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제1차 여-요 전쟁이 발발하면서 고려는 요나라의 공세에 밀렸으나 安戎鎭에서 승리하였다. 이로 인해 요나라 蕭遜寧은 군사행동을 멈추고 항복을 요구해왔다. 이에 徐熙는 강화의 기회로 보고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강화협정을 체결하였다.⁴¹⁾ 강화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나라가 고려에 강동 280리(강동 6주, 興化鎭·龍州·鐵州·通州·郭州·龜州)를 양도함으로써 압록강 동안의 영유권을 인정해줬다는 점이다. 비록 고려가 요에 청신한 것이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요나라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것이다.⁴²⁾ 다만 압록강 동안의 保州 宣義軍, 來遠縣⁴³⁾ 지역이 요의 영토로 남았는데, 이는 和約 체결시 압록강을 경계로 양해한 지계획정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상황이 묘하게 되었지만 고려와 요나라는 국교를 맺고 교통로를 개척하여 본격적인 교역을 시작하였다. 만부교 사건(942)으로부터 52년이나 지났고 드디어 통교를 하게 된 것이다. 당시 대외교역의 추세는 각장무역이었고 요나라는 일찍부터 송과 교역하고 있어 고려 접경에도 각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요나라는 송을 굴복시키고 1004년 진연의 맹약을 맺었으며 이듬해인 1005년 송과 고려의 접경지역인 하북의 진무군과 압록강변의 보주에 각장을 설치한 것이다.⁴⁴⁾ 이와 달리 고려는 요나라의 보주 각장에 상응하는 각장과 이를 관리

38) 거란은 국호를 ‘거란-대요-거란-대요’ 순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요’로 통일한다.

39) 『遼史』卷3 本紀3 太宗 耶律德光 12年 9月 辛未.

40) 『高麗史』卷2 世家2 太祖 25年 10月. 이때의 단교 사건을 가리켜 ‘만부교 사건’이라 한다.

41) 『高麗史節要』卷2 成宗 12年 10月.

42) 박한남, 2003, 「북방민족과의 관계」, 『한국사15 고려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303쪽.

43) 『高麗史』卷58 地理3 北界 義州; 『遼史』卷38 地理志2 東京道 保州 宣義軍 來遠縣;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 義州牧에 의하면 “처음에는 거란이 압록강 동쪽 기슭에 성을 두고 保州라 칭했고 고려 문종대에 거란이 弓口門을 설치하자 抱州 또는 把州라 일컬었다.”

하는 관청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의 재침에 대비하여 강동 6주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중원의 사례처럼 속지주의에 따라 각장의 경영과 무역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요나라가 압록강 동안을 고려령으로 인정하는 지계획정을 무시하고, 각장을 통해 보주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주 각장에 상응하는 고려의 각장이 없자 요 상인은 교역을 위해 고려 경내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보주 각장은 지정학적으로 고려뿐만 아니라 여진과의 중계무역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고, 고려 상인은 출입할 수 있어 많은 양의 교역 수요가 존재하였다.⁴⁵⁾ 이때 고려 상인은 국가가 상업과 교역을 관리하던 전근대 국가의 특성상 조정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국경을 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주 각장에 유입되는 고려의 物貨는 그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 조정에서 선별하여 보냈을 것이다.

각장에서는 고려의 물화와 요의 중계물품이 주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⁴⁶⁾ 특히 요나라가 고려와의 각장무역을 통해 이윤을 얻었던 곳은 요동 지역의 중심인 東京 遼陽府로 거란인과 발해인, 서여진(숙여진)족, 한족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동경은 하북과 요서 지역처럼 송나라와 교류하는 것보다 고려와 교역하는 것이 거리상 짧고 훨씬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보주 각장을 각별히 신경 썼을 것이다.⁴⁷⁾ 더욱이 995년경 보주와 定州 保寧軍에 요서의 백성들을 이주시킨 것도 비교적 인구가 적은 압록강 일대에서의 교역 수요를 증가시켰을 것이다.⁴⁸⁾ 요의 「**征商之法**」에 따르면 요 조정은 동경 요양부를 비롯한 四京과 여러 주현에 화물을 옮겨 판매하는 곳에 각무를 두었다고 한다.⁴⁹⁾ 따라서 국경의 보주 각장을 관리·감독하는 관청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주 각장은 6년 동안 운영되다가 1010년 요 聖宗이 강조의 穆宗 시해를 구실로 제2차 여-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폐쇄되었다.



44) 『遼史』 卷60 食貨志下. “統和二十三年, 振武軍及保州並置榷場.”
 45) 『遼史』 食貨志에 의하면 고려의 물화가 요의 주요 지역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거래된 고려 물화의 양은 비교적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고려 상인의 이윤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6) 『遼史』 卷60 食貨志下. “雄州, 高昌, 渤海亦立互市, 以通南宋, 西北諸部, 高麗之貨.”
 47) 이미지, 2003, 「高麗 宣宗代 榷場 문제와 對遼 관계」, 『한국사학보』 14, 82쪽.
 48) 『遼史』 卷38 地理志2 東京道 定州 保寧軍 保州 宣義軍 來遠縣.
 49) 『遼史』 卷60 食貨志下. “征商之法, 則自太祖置羊城于炭山北, 起榷務以通諸道市易, 太宗得燕, 置南京城北有市, 百物山附, 命有司治其征, 餘四京及它州縣貨產懋遷之地, 置亦如之.”

<그림 2> 요나라의 對고려 각장 설치 지역(1005~1018)⁵⁰⁾

이후 제2차 여-요 전쟁이 고려 顯宗의 친조를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요나라는 현종의 친조를 독촉하고, 더불어 강동 6주 반환도 요구하였다. 또한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요나라는 1013년부터 강동 6주에 대한 국지 도발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듬해인 1014년에 요 성종은 제2차 여-요 전쟁으로 폐쇄했던 보주 각장을 재개하고 강동 6주에 있던 定州를 점령하여 그곳에 각장을 증설하였다.⁵¹⁾ 물론 양국 간 대립이 극에 달했을 시점이라 두 각장에서 정상적인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때의 두 각장은 요나라 본국에서 조달한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군사거점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각장이 위치한 정주는 귀주의 屬縣으로 강동 6주의 한복판에 있었기에 그곳에 각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군사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 각장의 구체적인 철폐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1018년 제3차 여-요 전쟁이 일어나고 고려가 승리함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요나라 입장에서도 고려와 분쟁지가 남아 있는 이상 해당 지역에 각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⁵²⁾ 세 차례 전쟁 이후 승패의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고려가 요의 조공·책봉국이 되어 군신관계가 되었기에 요나라 입장에서 예민한 지역에 각장을 세워 고려의 심기를 건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⁵³⁾

2) 요의 각장 재설치 시도와 고려의 대응

11세기 중반까지 양국은 압록강 지역 국경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고려가 文宗代에 이르러 송과 단교한지 80여 년 만에 국교를 맺으려하자 요나라는 지속적으로 압록강 유역에 대한 경략을 시도하면서 城, 橋, 弓口欄子, 亭子, 窩頭 등의 시설들을 설치하였다. 요 조정의 의도는 고려와의 지계 분쟁을 유발함으로써 자국 우위의 국제질서를 분명히 하려던 것이다.⁵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는 1055년경에는 전투용 방책까지 세워 고

50) 遼代 고려의 북방 경계는 관련 단행본(안주섭, 이부오, 이영화, 2006, 『영토한국사』, 소나무, 104쪽, 107쪽)을 참고하였다. 또한 『遼史』 卷60 食貨志下 ; 『遼史』 卷38 地理志2 東京道 定州 保州 宣義軍. 두 사료에 나타난 요의 각장 설치 위치를 찾아 작성하였다. 요나라는 統和 23년(1005) 보주(평북 의주군)에 각장을 개설하였고 開泰 3년(1014)에 보주와, 정주(평북 정주군)를 취하여 이곳에 각장을 설치하였다.

51) 『遼史』 卷38 地理志2 東京道. “聖宗以高麗王詢擅立, 問罪不服, 統和末, 高麗降, 開泰三年取其保定二州, 於此置樞場.”

52) 송-요 각장무역의 경우 주로 ‘연운 16주’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전언의 맹약을 계기로 이 지역의 갈등이 비교적 완화되자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53) 『高麗史』 卷94 列傳7 諸臣 郭元. 현종 20년(1029)에 요동에서 발해 유민 출신 대연림이 요나라에 반기를 들자 광원은 현종에게 은밀히 아뢰며 압록강 동쪽의 요의 성채를 공격하자고 하였고 다른 신료들의 반대에도 이를 강행하여 패배하고 말았다. 여-요 전쟁 직후 고려의 보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54) 이미지, 2012, 『고려시기 對거란 외교의 전개와 특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3쪽.

려를 자극하였으므로 고려는 요에 사신을 보내 항의의 뜻을 보였다.⁵⁵⁾

이후 고려 宣宗 연간인 10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요나라가 압록강 지역에 각장 재설치를 논의하자 양국 간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이 시기 요나라에서는 1070년대부터 10여 년간 하북과 요양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과 기근이 발생하여 기존의 사행무역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금 국경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장 재설치를 시도한 것이다. 물론 이전에 국경시장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닌데 요나라는 1062년 買賣院이라는 교역소를 지었다가 국경시설에 예민하던 고려의 요청으로 폐지한 바 있었다.⁵⁶⁾

고려가 요나라의 각장 설치에 반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압록강 동안의 영유권 갈등과 관계가 깊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 당시 추진하던 對여진 기미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과거 여-요 전쟁 때 세워진 보주 각장을 통한 여진의 교역 수요가 있던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 고려의 여진에 대한 기미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려는 여진족 통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⁵⁷⁾ 그 예로 동북여진의 太史 阿道間 등 59인이 고려에 내조했을 때 담당관리가 靖宗에게 건의하기를 “太史는 거란의 관직명인데, 아도간이 지금 이미 귀화하였으므로 正甫로 바꾸어 제수하십시오.”라고 했을 정도였고 정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그에게 관직을 하사하였다.⁵⁸⁾ 또한 동여진인으로서 요와 통교하고 있던 沙伊邏 등 55인을 서북병마사가 붙잡아 서경으로 압송한 일도 있었고,⁵⁹⁾ 고려에 내부하던 高之問 등이 고려를 배반하고 요나라에 투항하자 군사를 보내 체포하여 처벌한 일도 있었다.⁶⁰⁾

고려는 요나라의 각장 재설치 시도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냈다. 선종 연간에 고려가 요에 사신을 파견한 횟수는 모두 13회로 정리된다. 그중 고려가 처음 요의 각장 재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1086년 5월부터 요 道宗이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1088년 11월까지가 9회이다.⁶¹⁾

그럼에도 1088년 2월에 요 조정이 압록강 기슭에 각장 설치를 의논하자 고려는 中樞院副使 李顏을 귀주로 보내 변방을 방비하는 한편,⁶²⁾ 동년 9월에 太僕少卿 金先錫을 사신으로 요나라에 파견하여 장문의 표문을 올리며 각장 설치 중지를 요청하였다.⁶³⁾ 이렇듯 고려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요 조정은 1088년 11월에 고려의 사신 김선석을 통해 회신하였다. 회신에서 요 도종은 고려의 거듭된 각장 설치 중지 요청을 거론하면서 요 내부에서도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력을 기울이겠으니 의구심을 품지 않기를 당부

55)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9年 7月 丁巳.

56)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5年 9月. “表曰…壬寅年(1062) 欲設買賣院於義宣軍南, 論申則葺修設罷…” 『增補文獻備考』 卷164 市糴考2 互市 高麗 文宗 16年(1062)條. “設遼國買賣院, 於宣義南.”

57) 노계현, 1993, 『高麗嶺土史』, 갑인출판사, 116쪽.

58)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2年 4月 乙丑. “東北女眞首領太史阿道間等五十九人來朝. 有司言, “太史, 契丹職名也, 阿道間今既歸化, 請改授正甫.” 從之.”

59)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3年 2月 己未. “西北路兵馬使捕東女眞交通契丹者沙伊邏等五十五人, 送于西京.”

60)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2月 丁卯. “都兵馬使奏, “東蕃酋長阿兜幹, 內附以來, 久承恩賞, 背我投丹, 罪莫大焉. 其黨首領高之問等, 今在蕃境, 請密遣軍士, 拘執入關, 拷訊端由, 依律科罪.” 從之.”

61) 류채영, 2005, 「고려 선종대의 대외정책 연구」, 한국문화연구 9, 266쪽.

62)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5年 2月 甲午. “二月 甲午 以遼議置榷場於鴨江岸, 遣中樞院副使李顏, 托爲藏經燒香使, 往龜州, 密備邊事.”

63)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5年 9月. “遣太僕少卿金先錫如遼, 乞罷榷場.”

하였다.⁶⁴⁾ 더불어 요나라는 사신을 보내 양 2,000마리, 수레 23량, 말 3필을 하사함으로써 고려를 위무하였다.⁶⁵⁾ 이후 요나라는 각장 설치에 대해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01년 8월 都兵馬使의 보고를 통해 확인된다.⁶⁶⁾ 도병마사는 요나라 東京兵馬都部署가 문서를 보내 아국 靜州 관내의 군영을 파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肅宗에게 알렸고, 요나라측이 정주 군영의 폐지 근거로 과거 大安 연간(1085~1094)⁶⁷⁾ 압록강에 정자와 각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고려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파할 것을 요청하자 요 황제가 이를 윤허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고려는 요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영을 파하였다.

이렇듯 여-요 관계는 형식적으로 요가 중주국이고 고려가 책봉국이지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관계로 있음을 11세기 중후반에 벌어진 일련의 소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2세기 초 만주에서 여진이 성장하여 금을 세우고 요와 북송을 멸망시켜 북방과 중원을 장악하자 고려는 금나라에 臣屬하였다. 이제 요를 대신한 금나라와 교류가 시작되었고 안정된 여-금 관계 속에서 각장무역이 전개될 수 있었다.

4. 高麗와 金(女眞)의 각장무역

1) 고려와 金の 각장 설치와 변화

11세기 말부터 송화강 지류인 아집하 유역의 생여진은 完顏部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었다. 여기에 맞서 고려는 12세기 초에 윤관으로 하여금 원정을 단행하고 동북 9성을 쌓으며 대응했으나 여진의 끊임없는 도발로 9성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여진은 더욱 성장하여 출하점 전투에서 요나라를 물리치고 1115년 금을 건국하였다, 금 건국은 북방의 격변을 의미하였다. 금군은 黃龍府, 護步答岡 등지에서 요군을 연이어 격파하고 요동 일대를 평정하였다. 이어 금나라는 요하를 넘어 요나라의 주요 도시와 상경 임황부를 함락하여 요를 패망시키고 하북을 점령하였다.

1110~1120년대 금나라가 급속히 팽창하던 시기 금 태조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동향을 살폈다. 1117년 阿只 등 5명의 사신을 파견하여 형제관계를 조건으로 화친을 청하였다.⁶⁸⁾ 1119년에는 제차 사신을 보내 요를 평정했음을 알리고 공물을 하사해 고려를 달랬다.⁶⁹⁾ 그런데 금나라가 1126년 북송까지 멸망시키자 고려는 동년 4월 금에 鄭應文과 李侯를 사절로 보내 칭신하고 진상품과 함께 표문을 올렸다.⁷⁰⁾

64)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5年 11月 壬申. “金先錫還自遼, 回詔曰, 屢抗封章, 請停榷易, 諒惟細故 詎假繁辭, 邇然議於便宜, 況末期於創置, 務從安帖, 以盡傾輸, 釋乃深疑, 體予至意.”

65) 『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5年 12月. “是歲, 遼遣使, 賜羊二千口, 車二十三兩, 馬三匹.”

66) 『高麗史節要』 卷6 肅宗 6年 8月. “都兵馬使奏, 今遼東京兵馬都部署移文, 請罷靜州關內軍營, 頃在大安中, 遼欲於鴨江置亭子及榷場, 我朝遣使請罷, 遼帝聽之, 今亦宜從其請, 從之.”

67) ‘大安’은 요나라 제8대 황제 道宗 耶律洪基(재위 1055~1101)의 4번째 연호로서 1085년부터 1094년까지 사용되었다.

68) 『高麗史』 卷14 世家14 睿宗 11年 4月 庚午; 『高麗史』 卷14 世家14 睿宗 12年 3月 癸丑.

69) 『高麗史』 卷14 世家14 睿宗 14年 2月 丁酉.

70) 『高麗史』 卷15 世家15 仁宗 4年 4月 丁未.

이에 대한 회답으로 금은 동년 7월 宣諭使 同簽書樞密院事 高伯淑과 鴻臚卿, 烏至忠 등을 보내왔으며 양국의 관계를 요나라의 舊制에 따르자고 하였다. 그리고 고려는 요나라가 금나라에 밀려날 때 요의 영토였던 보주 지역을 금에 양해를 구하고 점령한 바 있는데, 당시 금은 이를 묵인했을 뿐 지계획정에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때 금 조정은 요동에서 요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보주로 피란한 여진인을 파악하여 돌려보내면 보주의 영유권을 인정한다고 하였다.⁷¹⁾ 이에 고려 조정은 여진인 탐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1130년 금 조정에 표문을 올려 변방의 戶口로서 보주로 도망한 여진인을 수색하는 명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⁷²⁾ 얼마 후 금 황실의 종친이자 학식이 높던 金源郡王 完顏勗이 고려로 들어간 여진인은 이전 세대에 배반하여 도망간 사람들이라 하여 수색을 중지해줄 것을 금 조정에 상주하였다. 완안옥의 상소를 받은 금 태종은 이를 받아들여 고려에 내린 명을 거두고 큰 마찰 없이 보주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⁷³⁾ 고려로서는 遼代부터 분쟁지였던 보주를 점유하고 압록강을 금과의 경계로 삼을 수 있었다.

압록강변의 분쟁지였던 보주가 義州라는 이름으로 고려에 완전히 편입되어 국경이 안정되자 여-금 각장무역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⁷⁴⁾ 그러나 양국의 각장무역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금나라가 남송과 화해하면서 남송 황제, 서하 국왕, 고려 국왕을 차례로 책봉하고, 요와 북송의 각장 제도 및 법률을 계승하여 주변국과 전면적인 각장무역을 추진한 1140년대 초 무렵 혹은 그 이후에 여-금 각장무역도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금 각장무역은 양국의 우호 관계⁷⁵⁾ 속에서 고려의 서북면(북계)과 동북면(동계)의 변경지역에 각장이 설치되면서 이루어졌다.⁷⁶⁾

71) 『高麗史』 卷15 世家15 仁宗 4年 9月 辛未.

72) 『高麗史』 卷16 世家16 仁宗 8年 12月 乙酉. 금나라의 여진인 송환 요청은 1128년에도 있었다. 이때 금나라는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호구 문제에 있어 핑계를 대고 보주성만 차지하고 있다며 힐책하였다.(『高麗史』 卷15 世家15 仁宗 6年 12月 甲戌.)

73) 『金史』 卷135 列傳73 外國下 高麗傳. 『金史』 卷66 列傳4 完顏勗.

74) 『高麗史』 卷14 世家14 睿宗 12年 3月 辛卯. “改抱州爲義州防禦使, 以鴨江爲界, 置關防.” 금나라가 고려의 보주 영유권을 인정하기 이전에 이미 고려는 1117년 보주(포주)를 의주로 개칭하였다.

75) 조복현, 2011, 「12세기 초 국제 정세와 麗金 간의 전쟁과 외교」, 『동북아역사논총』 34, 89~90쪽. 금이 요와 북송을 폐망시키자 고려는 금에 대해서 사대의 예를 취하였다. 1127년부터 고려와 금나라 양국은 生日使를 교환하고, 새해가 되면 賀正使를 파견하는 등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13세기 초 몽골 제국이 등장하여 강성해지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76) 여-금 각장무역과 관련하여 1185년 고려 명종이 서북면(북계)병마사에게 “의주가 비록 두 나라의 호시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경은 용주(龍州) 창고에 있는 저포(紵布)를 가져다가 거란사(契丹絲)를 사서 바치도록 하라(『高麗史』 卷20 世家20 明宗 15年 正月 辛丑)”라는 기록으로 각장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고 당시 明宗代에 쓰인 詩 「榷場」과 1191년 금 조정이 논하던 ‘來遠軍’ 각장의 관리 기록을 통해 여-금 각장무역은 존재하였으며, 1185년 호시 금지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고려-금 각장 위치 비정77)

서북면 고려의 각장은 압록강변의 義州와 靜州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高宗代인 1216년 윤7월 북방의 정세불안으로 금인들이 의주와 정주에서 호시하여 미곡을 교역한 것과 금의 장수가 옛 우호를 저버리고 교역을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⁷⁸⁾ 더불어 고려전기의 문인 金克己의 詩인 「榷場」을 통해 이들 지역의 각장에서 여-금 양국의 상인들이 활발히 교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⁹⁾

특히 「榷場」에서는 義州防禦判官을 지낸 김극기에 의해 각장의 모습이 제법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이 시에 의하면 각장은 금의 사행단이 바로 왕래할 수 있는 국경근처 압록강변 고려 영토에 있었으며 교통에 편리한 들판에 설치되었다. 압록강 근처라 하면 여-금 양국이 주로 교역한 의주나 정주로 보이는데 김극기가 의주 지역을 관할한 판관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에서 확실히 각장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 상인들이 상거래 하는 모습은 과거 요 상인들이 고려의 각장이 없어 고려 경내에 들어올 수 없던 것

77) 金代 고려의 북방 경계는 관련 단행본(안주섭, 이부오, 이영화, 2006, 『영토한국사』, 소나무, 115 쪽)을 참고하였다. 또한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 閏7月 丙戌;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11年 1月 戊申; 『金史』 卷50 食貨5. 『高麗史』와 『金史』를 기반으로 하여 고려-금 각장의 위치를 작성하였다. 고려는 의주(평북 의주군)와 정주(평북 의주군 고성면 일대), 정주(함남 정평군)에, 금은 내원주(평북 의주군 검동도)와 청주(함남 북청군)에 각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78) 『高麗史』 卷22 高宗 3年 閏7月 丙戌. “自去年, 金人因兵亂資竭, 爭賚珍寶, 款義·靜州關外, 互市米穀.”

79) 『東文選』 卷6 七言古詩 「榷場」. “... 어떻게 사화(사신)가 먼저 새벽에 올 줄 알았으랴. 군악 소리가 압록강가를 뒤흔드는 구나. 놀라 일어나 옷을 입고 허둥거리며 자연(말의 이름)을 급히 불러 이내 채찍질 한다. 물결처럼 달려 비로소 침수관에 이르러 휘당 앞에 몸을 굽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다 한 때 군사는 홀로 서쪽 강을 건너 반리의 규벽전을 가로 뚫었다. 문득 보니 전려(오랑캐의 털 담요 천막)가 들 저자에 있는데 높은 깃발 펴려이고 북소리 일어난다. 큰 상인의 돈피 갖옷은 손을 지질 것 같고 거친 콧김은 바로 올라와 구름과 연기를 이룬다. 한 푼을 서로 다투면서 재물을 거두고 수레에 실으니 굴대가 부러져 어깨에 멘다. 촌뜨기는 얼굴이 추하고 입이 어눌해 달콤한 데에 속아 넘어 가는 것 참으로 가련하다. 연민을 형박으로 속아 사나니 어느새 주머니의 삼만 량이 다 흩어졌다. 어진이나 어리석은 이 모두 이익을 다투는데 때로 나는 오뎅이 앓아 멍청해지는구나. ... 되놈 아이가 왁자지껄 장막 밖을 지나는데 몇 걸음 떨어져서 벌써 누린내가 나는구나. 알겠구나. 그의 구렁 같은 욕심을 채우지 못했거니 내 음식 먹으며 움직이는 턱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겠구나.”

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금인의 입국은 변경 안보에 항시 예민했던 고려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해줬을 것이고 關門을 통과해야했을 것이다. 당시 천리장성에는 국경과 요해처에 설치되어 출입을 통제하는 여러 관문들이 있었는데, 북서쪽에는 靜州關과 義州關 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⁸⁰⁾

각장에 출입하는 고려인 역시 허가한 사람에 한해서 들여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교역이 활발했는지 재물을 많이 실어 수레가 파손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각장은 시장으로서 변경의 민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장에서의 교역은 중원의 경우처럼 관의 감독과 통제 하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시이기는 하지만 의주 지역의 책임자인 김극기가 각장에서의 무역활동에 대해 관리자의 시각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의 각장은 중원의 것처럼 각서나 각무 등 별도의 주무관청을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高麗史』나 『高麗史節要』 등의 사료에서는 관련 명칭이 보이지 않는데 국경지역의 防禦使가 지방관으로서의 임무 외에 각장의 관리와 통제 임무도 겸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금의 각장은 어디에 설치되었을까. 고려의 각장에 대응하는 금의 각장은 來遠州에 설치되었다. 『金史』 食貨志에서는 1191년 금 상서성에서 사주 각장의 관리와 방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대부분 각장의 舍屋과 일종의 세관인 關卡을 증수하거나 갑절로 늘리도록 하였다. 다만 東勝州, 淨州, 慶州, 來遠軍(來遠州)만은 예전처럼 두었다는 것이다.⁸¹⁾ 이 사실을 통해 금나라의 내원주 각장은 설치된 지 제법 오래되었고, 고려와의 교역은 관의 통제를 강화한 남송, 서하와의 각장무역과 달리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원 지역 각장의 사육과 관잡을 증설하고 내원군은 현상 유지’라는 사실로 볼 때 내원주 각장에도 관부의 사육과 관잡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부가 있다는 것은 밀무역을 단속하고 교역을 관리·감독하는 각서 등의 주무관청과 약간의 주둔군도 있었을 것이므로 각장에 금의 정책이 고스란히 투영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원주 각장이 중원의 각장에 비해 느슨했다는 점은 고려 상인의 활동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동북면의 각장무역은 양국의 교역이 압록강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遼代 고려의 북쪽 국경은 요와 동여진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경계가 금의 영토와 접하였기 때문에 교역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 있었다.⁸²⁾ 1224년 1월 금에서 자립을 선언한 동진국의 포선만노가 사신을 보내 동진은 靑州(北

80) 추명엽, 2004, 「高麗前期 關·津·渡의 기능과 商稅」, 『국사관논총』 104, 9쪽.

81) 『金史』 卷50 食貨志. “章宗明昌二年七月, 尙書省以泗州榷場自前關防不嚴, 遂奏定從大定五年制, 官爲增修舍屋, 倍設關禁, 委場官及提控所拘榷, 以提刑司舉察, 惟東勝, 淨, 慶州, 來遠軍者仍舊, 餘皆修完之.” 『金史』 卷24 地理上 東京路. 김순자, 2012,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 169쪽. 『金史』와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의주 검동도에 위치한 내원성은 고려가 遼金交替期 당시 보주와 함께 점령했지만, 이후 고려가 압록강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압묵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내원성은 금나라가 점유하면서 1182년 내원군으로 고치고 다시 내원주로 승격되었다.

82) 『金史』 卷24 地理上 上京路 東京路 合懶路(曷懶路). 金代 고려와 접한 지역은 크게 두 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했는데 東京 遼陽府가 속한 東京路와 반환된 동북 9성을 기반으로 함경도 일대에 설치한 合懶路(曷懶路)가 그것이다. 1224년 포선만노가 고려에 각장무역을 하자며 거론한 청주는 합라도에 속한다.

靑)에, 고려는 定州(定平)에 각장을 설치하여 이전대로 매매를 하자고 하였다.⁸³⁾ 이전과 같이 매매하자는 것은 얼마 전까지 여-금 간에 각장무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청주(북청)와 정주(정평)는 연안항로를 이용한 선상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으며 동북면 和寧府 元興鎮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 상업 활동을 하고 귀국한 사실이 노랫말로 남아 있다.⁸⁴⁾ 즉, 고려 동북민과 舍懶路의 금인들이 무역을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물론 군사적 성격이 강한 동계 지역의 특성상 일반 주민이 월경했을 것으로 보이진 않고 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국경무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2) 고려-금 각장무역의 쇠퇴

12세기 동안 여-금 각장무역은 평화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은 13세기 초에 들면서 위기를 맞고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206년 부족을 통합한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건국하면서 1209년 서하를 복속시키고, 1211년 금을 침략하여 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다. 1211년 몽골의 금나라 공격은 1214년까지 이어졌고 수도를 포위당한 금은 전의를 잃고 몽골과 강화를 맺었다. 이 무렵 몽골의 공격으로 금의 요동 통치력이 약화되자 피지배 민족이던 거란족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금 조정은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해 蒲鮮萬奴를 출전시켰으나 도리어 거란족에게 패하고 동경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포선만노는 1215년 요양 지역에서 자립하여 동진국을 건국하였다. 그러나 1217년 무칼리가 이끄는 몽골군의 공격을 받아 포선만노는 두만강 유역으로 이동하였고, 1218년 동진은 몽골에 복속하였다.⁸⁵⁾

이처럼 거란족과 포선만노의 반란, 몽골의 침략으로 만주와 요동 지역에서 금나라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자 본국과의 물자교류가 어려워진 동경에서 1216년경 고려에 거둬 牒文을 보내 미곡을 매매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미 1215년부터 의주와 정주 지역에서 미곡을 매개로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금인은 珍物을, 고려인은 미곡을 서로 교환한 것이다. 그런데 은 1정으로 미곡 4~5섬과 교환할 수 있었으므로 밀무역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 단속했으나 그치지 않았고 1216년 금의 요청도 자칫 밀무역으로 변질될 수 있었으므로 변경관리로 하여금 거절하였다. 그러자 금의 阿里不孫은 고려에 불만을 품고 고려인 10여 명을 잡아갔다.⁸⁶⁾ 1218년 蒲察五斤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금 宣宗은 포찰오근에게 사신 파견을 명하여 고려에 이 사건이 금 조정의 뜻이 아니었음을 해명하였다.⁸⁷⁾ 그러면서 금 조정은 과거 고려에 상호간 시장(각장)을 회복하자고 요청했던 完顏素蘭의 상소를 받아들여 양곡을 빌리고 시장을 개방하는 2건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典客署書表 劉丙을 고려에 파견하였다.⁸⁸⁾ 금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하여 고려 조정의 교역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

83)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11年 1月 戊申. “東眞國遣使, 賫牒二道來, 其一曰, 蒙古成吉思師老絕域, 不知所存, 訛赤忻, 貪暴不仁, 已絕舊好, 其一曰, 本國於靑州, 貴國於定州, 各置權場, 依前買賣.”

84) 『高麗史』 卷71 志25 樂2 元興. “元興鎮, 東北面和寧府屬邑, 濱于大海, 邑人船商而還, 其妻悅而歌之.”

85) 이재선, 2009, 「高麗 高宗代 對東眞關係의 주이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쪽.

86)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3年 閏7月 丙戌.

87) 『金史』 卷15 本紀15 宣宗 完顏珣 6年 夏4月 壬寅.

지 않지만 호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황상 금 선종이 고려와의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었는데 사절로 파견된 유병이 돌아오자 바로 翰林待制를 제수한 것으로 볼 때 소정의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금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가 금 선종의 조서를 받고 호응한 것은 대외적인 이유가 컸다. 1216년 금 조정에 반기를 들은 동진의 포선만도는 요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오늘날 단둥 지역인 婆速路를 침범하였고, 1217년 고려 경계의 大夫營까지 공격하였다.⁸⁹⁾ 이에 고려는 동진의 위협을 경계하여 금나라에 곡식 8만석을 지원하였다.⁹⁰⁾ 고려는 압록강 하구까지 세력을 뻗치는 동진에 위압감을 느꼈고 금이 이들을 막아주길 바라는 목적으로 식량을 지원해줬을 여지가 있었다.⁹¹⁾ 그러나 여-금 각장무역은 이전 세기처럼 지속될 수 없었다. 이는 금나라 요동 통치의 거점인 동경로가 1219년을 전후하여 몽골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5. 각장무역의 성격과 의미

여-요 각장무역은 10여 년(1005~1018) 밖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요의 보수 각장이 설치되고, 이후에 정주 각장이 추가로 설치되었음에도 고려는 이에 상응하는 각장을 두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요와의 각장무역이 난항을 겪은 이유를 고려전기의 사무역 통제와 국가주도의 무역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각장무역에 국가가 관여하지만 결국 개인이 무역활동의 주체가 되는 사무역이라 하였다. 또한 고려전기에 외국 상인들이 공물을 조정에 진헌하면 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민간에 매매한 사헌무역의 존재를 들며, 사헌무역이나 사행무역이 국가 통제에 용이하여 각장무역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하였다.⁹²⁾

그러나 각장무역에 상인이나 일반백성 등 개인이 참여했다고 해서 무역의 주체(사무역)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조정과 관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통제가 이루어지며 국가 간 교류의 성격이 강한 관무역이었다. 각장은 기본적으로 관의 허가를 받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었으며, 주요 품목을 관리하던 관의 주도아래 징세와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무역의 주체는 관(국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가 요의 각장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인은 사행무역에 준하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요의 각장에 출입 시 거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또한 각장무역이 국가 주도 무역이라고 한다면 사헌무역의 사례로 각장무역의 역할을 저조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각장무역이 고려의 사무역 통제에 저촉된다면 고려의 물화가 유입된 보수 각장이 10여 년간이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등장한 금과의 각장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상기한다면 요와의 각장무역 부진이 사무역 통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음을 알

88) 『金史』 卷15 本紀15 宣宗 完顏珣 6年 夏4月 癸丑; 『金史』 卷109 列傳47 完顏素蘭.

89) 『高麗史』 卷22 世家22 高宗 4年 4月 己未.

90) 『金史』 卷103 列傳41 完顏阿里不孫. “興定元年…是時, 蒲鮮萬奴據遼東, 侵掠婆速之境, 高麗畏其強, 助糧八萬石.”

91) 이재선, 2009, 「高麗 高宗代 對東眞關係의 추이와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쪽.

92) 이정희, 1997, 「고려전기 대요무역」, 『지역과 역사』 4.

수 있다.

金代에 고려가 직접적으로 자국의 영토에 각장을 설치한 것은 遼代에 비하면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각장의 명칭과 개념은 일찍이 교류가 잦던 북송으로부터, 각장의 실체는 요나라로부터 들어왔다면 고려가 각장을 국경지역 교역장으로 인식하여 이것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고자 했음은 충분할 것이다. 중원 각장의 경우 매매와 징세, 관세 부여 외에 전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차, 술, 소금, 명반 등 여러 종류의 일용필수품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고, 주로 물자가 풍부한 송나라가 전매제도를 활용하여 물자가 필요한 북방국가들과의 교역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결국 이러한 점 때문에 각장을 매개로 송은 북방세력과 평화유지 및 공존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반면 고려의 각장은 전매를 주요한 기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고려시대 전매제도를 보면 전기에 다점이나 주점 등의 관영상점을 통해 송나라처럼 차와 술을 전매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후기에 들어서 소금을 전매하였으며⁹³⁾ 철도 멸망직전에 건의되었기 때문이다.⁹⁴⁾ 더욱이 고려의 각장이 북방의 금나라를 상대로 기미하기 위해 전매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중원의 물자가 필요한 고려가 금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각장에 지급하면서 교역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려의 각장은 국가가 관리하고 징세하지만 특정 국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상거래 중심의 교역장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고려의 각장이 경제적 기능에 국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12세기 초중반 고려와 송의 해상무역을 끊겼기 때문이다. 고려로서는 대체무역국이 필요하였고, 각장을 통해 금과 교역하는 것만으로 만주와 중원의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송과의 무역 침체는 고려가 금과의 교역에 전념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 남송 조정은 금의 수군이 해상으로 침입할 것을 우려하여 해로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송 상인들은 북으로 올라가는 해로를 이용하기 힘들었다. 송-금 전쟁이 시작된 1125년부터 소흥화회가 이루어지는 1141년까지 송과 고려의 무역활동이 거의 없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남송은 금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고려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고려는 자국의 안전을 이유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를 계기로 여-송 관계는 소원해지고 1164년 이후로 왕래가 거의 중단되었다. 고려에서 송의 문물을 수입하던 정상적인 통로가 대부분 끊긴 것이다.⁹⁵⁾

고려가 金代에 이르러 각장무역을 하게 되면서 각장은 사행단의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었다. 물론 각장은 이미 중원에서 사신들이 국경을 넘기 전에 들리는 공간이기도 했으므로 전혀 새로운 기능은 아니었다. 다만 고려의 압록강 각장은 여-금 사행로의 경유지였기에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금 사행은 적지 않은 횟수와 규모를 자랑했는데, 금나라에 파견된 고려의 사신

93) 『高麗史』 卷79 世家33 食貨2 塩法. “忠宣王元年(1309)二月…本國諸宮院·寺社, 及權勢之家, 私置塩盆, 以專其利, 國用何由可贍? 今將內庫·常積倉·都塩院·安國社, 及諸宮院·內外寺社, 所有塩盆, 盡行入官.” 사료에 따르면 소금 전매제를 시행한 것은 충선왕이지만 이미 충렬왕 시절부터 소금을 전매하게 하였다.

94) 『高麗史』 卷79 世家33 食貨2 塩法. “(恭讓王)三年(1391)七月 都堂啓, “塩鐵, 國課之大者, 本朝鐵, 人皆私之, 而官未立法. 宜置冶官·鐵戶, 一如塩法, 以資國用.” 上從之, 然事不行.”

95) 백승호, 2006, 『고려와 송의 무역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3쪽.

종류는 遼代에 비해 줄었으나 정기사행의 횡수는 증가하였다. 금나라도 답례 사절을 보내되 많은 수의 사행인원과 물자를 동원하였다. 한 예로 1199년 4월 고려에 왔던 금 책봉사절단의 규모는 사신과 수행원을 포함해 261명이었으며, 수레 21대와 말 14필 등도 함께 왔다. 이는 요나라 사절에 비해 두 배나 되는 규모였다. 양국의 사행인원이 증가한 것은 그 만큼 조공과 회사를 통한 물품 교류의 기회와 수량이 증가했음을 의미하였다.⁹⁶⁾ 이렇듯 여-금의 공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많은 인원이 물자를 운반하여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여-금 사행은 육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해로에 비해 비용, 인력, 물동량 등 제한이 많았다. 이는 곧 양국의 국경에 위치한 각장이 사행단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면서 장거리 운송과 이동의 한계를 줄이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6. 맺음말

고려시대의 각장은 중국 宋代에 기원하였지만 각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북방세력에 의해 등장하였다. 요와는 세 차례 전쟁을 겪는 와중에 요나라에 의해 각장이 설치되었으며, 압록강 동안 보주의 영유권으로 비롯된 지계 획정 갈등으로 인해 각장은 외교적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의 정치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고려가 각장의 경제적 가치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요가 멸망한 이후 고려는 중원까지 장악한 금과 보주의 귀속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양국 변경에 각장을 설치하여 무역을 진행한 것이다. 여-금 각장무역은 양국의 우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몽골의 위협이 본격화되던 13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고려의 각장은 宋代 이전의 호시처럼 필요시에 설치된 비상설 교역장이 아닌 무역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가의 통제가 개입된 상설 교역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매권을 특징으로 하는 중원의 각장과 달리 고려의 각장은 전매를 했을 만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거래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관리·감독·징세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장무역은 허가받은 개인이 각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무역의 주체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관무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와 요·금의 각장무역에 있어 양측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문안 및 친선 성격의 조공이나 사행무역과 달리 각장무역은 고려에 상시적인 물자의 수·출입을 제공할 수 있었다.

고려는 각장무역을 통해 북방과 중원의 물자를 획득함에 있어 용이하였고, 김극기의 시 「樵場」에서처럼 변경지역 민생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대송무역이 침체되자 이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각장무역은 영유권 문제가 내재되어 있던 요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양국 관계의 안정과 공존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6) 이진한, 2014,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179쪽.

반대로 요·금도 고려와의 각장무역으로 이점이 있었다. 요나라는 중계무역과 국내 유통을 위한 고려 특산품 조달을, 금나라는 고질적인 재정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요동 지역 민생에 이익이 되었기에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진행한 것이다.

이후 각장은 몽골 쿠빌라이 칸(원 세조)에 의해 압록강 인근에 설치되었지만 양국 관계의 불화로 인해 1년도 안 돼서 폐지되어 다시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와 요·금의 각장무역이야말로 실제화된 국경무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각장무역은 이후 조선시대의 국경무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공식적 무역인 開市와 비공식적 무역인 後市가 형성되는데 경험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사료를 검토하여 고려시대 각장무역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성격을 고찰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양 세력의 구체적인 교역품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계기로 향후 고려와 송·요·금과의 무역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 고려전기 대외무역의 특질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宋史』, 『遼史』, 『金史』, 『高麗史』
『高麗史節要』, 『宋會要輯稿』,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2. 저서

노계현, 1993. 『高麗嶺土史』, 갑인출판사
박한남, 2003, 「북방민족과의 관계」, 『한국사15 고려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안주섭, 이부오, 이영화, 2006, 『영토한국사』, 소나무
이진한, 2014,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3. 논문

김순자, 2012,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
강길중, 2005, 「宋代 關稅의 徵收體系와 그 財政的 比重」, 『역사문화연구』 22
강준영, 2014, 「12세기 초엽 금(金)의 대(對)고려 관계 연구」
류채영, 2005, 「고려 선종대의 대외정책 연구」, 한국문화연구 9
박윤미, 2011, 「12세기 전반기의 국제정세와 고려-금 관계 정립」, 『역사연구』 104
백승호, 2006, 『고려와 송의 무역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은미, 2016, 「요금시대(遼金時代) 차(茶)의 소비(消費)와 교역(交易)」, 『중국사연구』 102
유나나, 2020, 『서하(西夏)의 실크로드 무역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옥봉, 2011, 「당대(唐代)의 호시(互市)와 그 관리」, 『동국사학』 50
이미지, 2003, 「高麗 宣宗代 榷場 문제와 對遼 관계」, 『한국사학보』 14
이미지, 2012, 『고려시기 對거란 외교의 전개와 특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선, 2009, 「高麗 高宗代 對東眞關係의 추이와 성격」
이정희, 1997, 「고려전기 대요무역」, 『지역과 역사』 4
정병준, 2010, 「唐代的 互市와 張保臯의 對唐交易」, 『중국사연구』 69
조복현, 2011, 「12세기 초 국제 정세와 麗金 간의 전쟁과 외교」, 『동북아역사논총』 34
추명엽, 2004, 「高麗前期 關·津·渡의 기능과 商稅」, 『국사관논총』 104
한지선, 2019, 「印度洋 貿易 네트워크상에서의 朝貢과 互市」, 『명청사연구』 52

박정환, 「高麗와 遼·金の 榷場貿易 推移와 性格」에 관한 토론문

정나영(이화여대)

본 논문은 고려와 遼(契丹), 金 사이에 있었던 榷場의 설치와 운영방식, 시기별 변화과정 및 그 성격을 중국의 사례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10~12세기 고려와 주변국 간 각장무역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논의에서 각장은 외교 갈등을 일으킨 시설물 중 하나로 설치가 시도된 배경이나 당시 고려의 외교적 대응이 주로 논의되었고 각장교역은 무역의 한 방식으로서 부수적으로 다루어 졌는데, 본 논문은 각장과 각장을 통한 교역 양상에 주목해 이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시기 송과 주변국 사이의 사례를 통해 고려의 각장무역도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각 시기 정치, 경제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여 고려와 주변국 간 각장교역의 양상과 특징을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토론문에서는 발표문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고민해보았으면 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고려-요 관계에서 각장이 설치된 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논문의 33페이지에는 요가 開泰 3년(1014) 保州와 定州에 각장을 설치했고, 여기에서 정주는 강동 6주 중 歸州의 屬縣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遼史』에는 고려가 州를 설치하고 來遠縣을 두었다가 요가 1014년 보주와 정주 2개 주를 취한 후 각장을 세웠다고 되어있습니다. 『高麗史』의 경우 1014년 요는 압록강에 다리를 만들고 이듬해 현종 6년(1015, 개태 4년) 다리의 동, 서쪽에 城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顯宗이 親朝를 거부하자 현종 3년(1012)부터 요는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했고 이들 지역에서 양국 간 충돌이 있었지만 고려는 계속해서 강동 6주를 영유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황상 요가 강동 6주 지역에 각장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짐작되며, 위의 사료를 참고할 때 정주는 1014년 점령한 보주 인근의 定州 保寧軍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고려가 요의 각장 설치에 반대한 배경을 논의한 부분입니다. 요는 11세기 중후반 買賣院과 각장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이는 고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고려가 반대한 이유로는 압록강 동쪽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언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는 논문의 34페이지에서 양국 간 갈등과 더불어 고려가 여진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각장 설치를 반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려-요-여진이 밀접하게 연관된 당시 국제관계의 일면과 관련해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고려의 우려는 각장에서의 교역을 통해 고려-여진 간 교역이 줄어들고 여진이 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고려-여진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각국이 각장에서 교역을 주도했다고 하면 고려-요 간 각장교역에 여진의 참여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록강 주변 각장에서는 위치상 이미 거란에 편적된 熟女眞(고려에서는 西女眞으로 표기)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역이 더 활발했던 고려-東女眞 간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고려와 금 사이의 각장교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자는 논문의 38페이지에서 양국 간 교역은 송과 주변국 사이의 각장무역과 비교할 때 통제가 느슨했다고 지적하고, 40페이지에서는 각장에서의 교역이 미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상 고려에서 각장교역을 관리하는 별도의 관서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통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느슨했던 점은 한편으로 각장에서의 교류나 이익이 적었던 사실을 방증한다고도 생각됩니다. 특히 송과의 무역이 침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송상이 오간 사례가 있고 당시 고려-금 관계에서 사행이 빈번했던 만큼 사행을 통해 필요한 물품이 확보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41페이지에는 사절단이 사행 중 각장에 들러 교역했을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행에는 상인들이 동행했고 이들은 사행 중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송-요 간 사례를 보면 각장에서 각국 상인은 각국의 통제 아래 직접 대면하지 않고 중매인인 牙人이 양자를 오가며 중개하는 형식으로 교역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장의 운영방식을 참고할 때 사절단의 경제적 교류는 각장에서의 교역과 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4. 정확한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고려-요와 달리 고려-금 사이에는 각장교역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교역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12세기 송 상인이 고려로 가져온 물품이나 사행에서의 하사품, 11세기 여진이 來朝나 來獻 당시 바친 물품을 확인하면 서북과 동북 국경의 각장에서 각각 어떠한 물품이 교역되었는지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을 읽고 이상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토론자로서 발표자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국의 조선우 산업과 식민지 축우 육성 -장윤걸, 노성룡의 조선우 연구-

김진규(서울대)

1. 머리말
2. 장윤걸의 연구 : 재편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3. 노성룡의 연구 : 재편 후, 축우정책은 어째서 난관을 겪게 되는가?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장윤걸의 박사논문인 『植民地化過程における朝鮮牛-帝國日本の畜産資源確保と 利用』¹⁾을 재구성한 『帝國と朝鮮牛』²⁾와 노성룡의 박사학위논문인 『조선총독부 축우정책과 축우자원의 식민지적 ‘개발’』³⁾이라는 두 저작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의 조선우 연구 성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두 저작 모두 축산자원으로서의 조선우를 밀도있게 다룬 것으로, 다음의 지점에서 현재의 조선우 연구의 현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두 연구 모두 거대한 시간적 배경을 총괄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리되어 있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다소 파편화되어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조선우의 무역양상을 다룬 연구들의 경우 그 구조가 식민지화에 따라 종속되는 의미를 고찰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다소 파편화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조선우와 관련한 축우정책사 혹은 경제사의 경우 그 침략성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수량에 집중함에 따라 각종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다루는 정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장윤걸의 경우 개항기 조선우 이출에 대한 대외관계사를 일본을 중심으로 집대성한 것이고, 노성룡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선우가 어떠한 과정으로 육성되었는지를 식민지기를 중심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각의 연구는 각각 개항기와 식민지기 조선우의 양상을 거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이 주제를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두 연구 모두 조선우를 축산자원으로서, 제국의 식민지 착취라는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우와 관련한 전통의 맥락이라는 것은 제

1) 蔣允杰, 2019, 『植民地化過程における朝鮮牛-帝國日本の畜産資源確保と 利用』, 一橋大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2) 蔣允杰, 2023, 『帝國と朝鮮牛-畜産資源の確保と植民地化』, 晃洋書房.

3) 노성룡, 2023, 『조선총독부 축우정책과 축우자원의 식민지적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국의 식민정책에 의해 변용, 개조될 수밖에 없었음. 두 저작 모두 그러한 전통의 맥락을 소개함과 동시에 조선우에 대한 식민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거시적인 조선우 연구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는 그 주체는 일본과 조선으로 다르지만, 지역사회라는 지점에 집중하고 있다. 장윤걸의 경우 축산자원에 대한 제국 내 수요가 서일본 지역, 특히 야마구치 일대의 지역 레벨에서부터 논해졌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개항 초기 조선우의 수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정과 우역 체제의 정비 또한 제국의 정책에 선행하는, 지역 사회에서의 어떠한 후속조치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성룡의 경우에는 조선우에 대한 총독부의 축산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물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이것이 식민지기 전반에서 축우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던 주된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점은 두 논문이 우선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대외관계사 혹은 정책사라는 맥락을 넘어 농업사 및 사회사라는 지점에서조차 조선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당한 공통점과 아울러 두 저작은 차이도 보인다. 장윤걸의 연구는 일본제국의 맥락에서 한국의 조선우 수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개항기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다루는 것임. 이것은 관계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반면 노성룡의 경우에는 전사의 개념으로 일본의 어떠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으나, 저작에서 언급하고 있듯 조선 내 농업사의 맥락, 그리고 식민정책사의 일환으로 식민지 조선에 집중해 조선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동일한 소재를 다루더라도 두 저작의 성격은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장윤걸과 노성룡의 순으로 연구저작을 다루면서 그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저작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중요한 지점에 대해 논평해보고자 한다. 다만 글의 분량 및 다루는 시대의 차이상 노성룡의 연구저작을 위주로 소개를 진행해보려 한다. 맺음말에서는 이를 정리한 후 향후 조선우 연구상 진행해볼 만한 지점을 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장윤걸의 연구 : 재편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가?

장윤걸의 저작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의 틀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가 뿐 아니라 각국의 지역사회, 그리고 일본의 확장에 따른 군대와 정상(政商)이라는 여러 이해주체들을 엮어 그 존재들을 총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저작은 그 기본적인 초점을 제국 일본 측에 두고 그러한 정책적 움직임이 한국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지역 토착 상인, 그리고 조선에 주재하는 공사관의 여러 상황을 보고 제국 일본에게 있어 조선우의 위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저자가 조선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본과 조선은 19세기 중엽에 개항함에 따라 국가의 주된 경제구조가 농업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가져오는 것은 전통적인 노동력의 제공주체인 소였다. 다만 노성룡의 글 1장에서도 재차 언급되는 지점이지만 일본 내에서 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선우는 노동력과 식품 뿐 아니라 소가죽, 소뼈, 소뿔 등 다양한 상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즉 조선우는 그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주요 수출품으로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선우를 통해 개항기부터 식민지배 직전까지 일본이 취하였던 팽창정책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본문의 7장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정치적인 어용상인(정상)을 통하여 자본을 투입시키고, 이를 통해 제국이 원하는 구조를 미리 육성하는 정책은 식민지기의 정치, 경제적인 지배력의 확대와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조선을 넘어 사할린,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일대까지 그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자는 제국 일본과 조선우를 규정하는 각각의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일본은 어떻게 조선우라는 축산자원을 확보하는지를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결합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관계성을 개항기라는 거시적 틀에서 파악하고,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축산정책이 어떠한 맥락에서 확립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조선우라는 ‘자원’을 둘러싼 역사적 전개가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동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주로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실업의 일본』, 『피혁세계』, 『목축잡지』 등의 경제 관련 자료가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한국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일본의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저작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및 『관보』 또한 다수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서장과 종장을 포함해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다시 1부와 2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1부는 근대 이후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선우 무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지역사회라는 시야에서부터 출발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개항기 조선우의 유통과 수출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유통 및 수출 과정에 수반되었던 무역 문제와 관련해 1890년대 일본의 조선우 정책을 지역사회의 레벨에서부터 살펴본다. 3장과 4장은 조선우를 대상으로 일본이 조선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조선의 지역 변동을 논한다.

2부의 경우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어떻게 조선우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식민지배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조선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5장은 일본의 시점에서 소가죽을 활용한 제혁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는 어떠한 양상을 다루고 있다. 6장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이 제혁업계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7장에서는 그 최종적인 결과로서 식민지기 조선에 있어 군수공장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제국의 경제권에서 조선우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해석한다.

장윤걸의 연구저작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1장과 2장의 지역사회 서술이다. 1장의 경우 조선 내 우시장의 분포 양상 및 그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저자가 밝히고 있듯 이 시기

정확한 분포양상 및 그 규모는 남아있지 않으나, 최대한 이를 정리한 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흥미로웠다. 이 대목에서 핵심은 전국에 산재한 우시장을 통해 각 지역의 축산 통계를 어렵듯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우시장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갖춘 대도시 인근에서 활성화된다. 한편으로는 운반용으로 소달구지를 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는 함경도 일대는 인구보다 생우의 수가 많다고 추산하고, 그에 따라 우시장 또한 잘 발달해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개항 이후에는 대러시아 무역로인 함경도의 성진, 길주 일대나 대일본 무역로인 부산 일대의 경우에도 우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우시장에서 조선의 소 상인은 직접적으로, 혹은 거간꾼 및 객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를 판매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일본 상인들이 처음에는 쉽게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어떠한 기반 및 정책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직접구매를 통하여 일본 내 수요를 충족하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였던 것은 소가죽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우, 마지막으로 비료용으로 사용하는 소똥 등이 있었음을 저자는 통계를 동반하여 서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농우 및 소가죽이라는 지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료 혹은 공예용으로 소똥 또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장의 1,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 지역사회 층위에서의 조선우 인식 및 우역 대응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조선우 수입에서 가장 골치가 되었던 것은 다름아닌 우역 문제였으며, 이는 노성룡의 연구에서도 밝히듯 조선우 수입금지의 여론까지 일어났을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장운걸은 일본 내의 공식 통계를 토대로 1877년부터 1910년까지의 생우 및 도살두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역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음을 설명한다.

실질적으로 조선우에 대한 수요는 야마구치 등 서일본 지역이었으며, 이들 지역은 우역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음과 동시에 우역의 창궐지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 지급 및 신속한 격리와 도살이라는 후속대처를 넘어 본격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저자는 실질적인 피해상황을 야마구치 현 내의 구카군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역의 종식 등은 어떠한 후속조치가 아닌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적 요소에 기반한 것이었고 이는 곧 우역에 대한 지역 단위에서의 대처가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한단 것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앙 정부가 효율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단행할 필요가 있었음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1부에서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으며, 그 성과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지점에서 아쉬운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역사회가 어떠한 정책에 기여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의 우시장같은 경우 조선이 개항기에 들어 그에 대한 장악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였기에 지역사회와 국가정부의 노력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즉 일본 정부의 어떠한 정책적인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은 다소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또한 재편의 대상으로 객체화되는데 그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제시할 수 있을 듯 하다.

일본의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제기할 수 있을 듯 하다. 이 글에서는 지역의 토착상인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상을 또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노력 등이 정부의 정책과의 관계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즉 우역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어떠한 요구라기보다는 지역 전반, 즉 제국 내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요구가 있었고, 질병 예방이라는 맥락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지역사회의 어떠한 역할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저작에서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2부에서 언급하는 제혁업과 조선우 통제에 관한 것이다. 저자가 서두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 저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질, 즉 각종 이해관계에 대한 도출과 그에 따른 식민지의 종속적은 경제구조 등은 2부의 제혁업 및 통제정책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즉 조선우를 둘러싼 여러 주체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양상을 서술하였다는 점만으로도 이 연구저작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5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일본의 제혁업을 중심으로 조선우와 일본 내 제혁산업 간의 관계, 그리고 한국으로의 제혁업 진출이라는 대목을 서술하고 있다. 이 지점은 식민지화에 선행해 국가의 직접적인 압력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가장한 ‘정상’ 자본이라는 주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설명에 따르면 5장에서 설명된 제혁정상자본인 후지타구미와 오쿠라구미에서 경력을 쌓은 카다 킨사부로는 청일전쟁 시기에 군납을 담당하였으며, 식민지 대만으로 건너가 다량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제혁업계의 거물이 된 카다 킨사부로는 사업보국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충실한 어용상인이자 정상이 되었으며,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의 힘으로 식민지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피혁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 조선피혁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920년대 군축의 경향에도 일시적 감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군수 품목에 더욱 집중한 결과 육, 해군에 납품을 하는 지정공장으로 선발이 되었다. 그 결과 1930년대부터 회사의 성적이 다시 신장되었고 전시체제기에는 군수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조선 유일의 제혁회사가 되었다. 이러한 군수납품체제는 결국 개항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던 일본의 조선우 자원화와 이용이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정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카다 킨사부로를 통해 설명하는 이 주제는 일본 정부, 군부, 지역 상인, 그리고 특정한 어용상인과 자본가라는 다양한 이해주체를 모두 종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 이러한 서술과정에서 지나치게 당위성이 조절된 것은 아닌가 하는 가벼운 의심마저 들 정도로 설득력이 있게 다가왔다. 더불어 이 글에서 소략되어 있는 전시체제기에 이르는 과정의 경우 이 군수회사를 통해 같음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해당 저작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은 지점은 그와 같이 재편된 식민지의 경제구조 속에서 식민지는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 및 암시로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제국과 식민지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고자 이하에서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저작인 노성룡의 「조선 총독부 축우정책과 축우자원의 식민지적 ‘개발’」을 확인할 것이다.

3. 노성룡의 연구 : 재편 후, 축우정책은 어째서 난관을 겪게 되는가?

노성룡의 박사논문은 농업사의 맥락에서 축우정책을 확인하는 정책사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이전부터 ‘대부사업’, ‘가축보험제도’, ‘축산조합’, ‘가축방역’ 등의 주제를 통해 식민지 시기 조선우의 육성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⁴⁾ 해당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재구성한 결실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우를 통해 식민제국의 필요에 의해 상품공급기지로 재편된 식민지의 양상을 보여주는 데 있다. 그와 더불어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조선우의 양상을 농업사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 또한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농업사 연구성과에서는 축우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농업정책과 축우정책의 관계성이 잘 해명되지 않았다.⁵⁾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농업정책의 연장선상으로서 축우정책을 묘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저작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일본의 근대화부터 1912년까지의 시기 속에서 일본이 조선우를 축우기지화하는 양상,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도되었던 ‘이종개량’ 중심의 축우개량정책을 다루고 있다. 2장에서는 조선우의 품종 개량을 위하여 주목되었던 종모우를 둘러싼 담론을 1925년까지의 시기 속에서 다룬다. 3장에서는 ‘경우대부사업’ 및 ‘축우공제보조사업’을 통하여 축우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도되었던 일련의 정책과 그 전개를 다룬다. 4장에서는 농촌진흥운동과 더불어 축우의 사육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유축농업정책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전시체제 및 총력전기에 돌입함에 따라 조선우 소비를 통제하고 축우의 수를 늘리는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각 장절을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1장의 경우 제국주의의 팽창에 필요한 축우를 공급받고자 조선우를 축우기지화하는 과정을 시기적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다. 메이지 시기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식육과 농경, 그리고 가방과 신발 등 군수품 제작의 목적으로 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화우(일본소)에 대한 이종개량을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우는 스위스, 스코틀랜드 등 유럽 산간 지역에서 유래한 품종과의 교배를 통해 개량되었다. 그러나 목초지의 부족과 개량된 화우의 가격 상승은 축우의 증가를 막는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안정적인 축우 공급지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거리상으로 지극히 가까워 수송에 유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조선우가 그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조선우 수입에서 난관으로 작용한 것은 다름아닌 우역(牛疫)이었다. 이러한 우역은 장운결의 글에서도 드러나듯 1892년부터 1910년까지 거의 매년 발생하였으며, 그 창궐지는 대체로 조선우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과 부산이었다. 한국병합까지 140만 엔의 방역비가 지출되었던 만큼 이 시기 조선우와 관련된 정책은 우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역정책이었다. 즉 안정적인 조선우의 공급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였으며, 그 대책으로 시행된 것은 일본 내 수입항과 조선의 수출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역을 진행하는 이중검역체제였다. 조선의 수출항은 통감부에 의한 보호국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이중검역체제에 적합하도록 방역기구가 재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중검역체제의 정비와 함께 일본은 본국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선우를 개량하고, 축우의 수를 증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우에 대한 개량은 일본과 동일한 이종개량의

4) 노성룡, 2017,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경우대부사업’ 운영과 성격」, 『역사와 현실』 104 ; 노성룡, 2017, 「일제하 식민지 가축보험제도의 전개와 축산조합 - ‘축우공제보조사업’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128 ; 노성룡, 2021, 「1910년대 식민지 가축방역체계 연구」, 『사학연구』 142.

5) 노성룡, 앞의 글, 15쪽.

정책이 시도되었다. 다만 일본에서 원하는 조선우의 자질은 대체로 경작용 농우(農牛) 및 일소였으며, 이종개량의 결과 조선우의 체격은 증가하였으나 작업능력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출되었다기에 이와 같은 이종개량 정책은 폐기되었다. 한편 조선우 증산을 목표로 하였던 해당 시기 축산관료들은 조선이 평야가 많아 목축에 적합한, 일종의 ‘조선미개지론’에 기반하고 있었다. 다소 낙관적인 이들의 전제는 실제 조선의 지리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증산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해당 장은 그 동안 연구가 축적되었던 개항기 조선과 일본 간의 조선우 무역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후의 전개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전사(前史)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차별성은 일본에 의해 재편되는 한국의 축산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식민제국의 축산관료들이 의도하고 있었던, 혹은 바라고 있었던 조선의 축우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는 해당 장을 서술하기 위해 농림성축산국에서 발행하였던 『畜産發達史』와 『日本帝國家畜傳染病豫防史』, 그리고 『朝鮮之産牛』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다만 이 장의 자료 면에서 다소 아쉬운 지점 또한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축우정책을 서술함에 있어 김영진과 홍은미의 「농무목축시험장의 기구변동」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제국기 축우정책을 설명하는데 이 논문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지점은 다소 아쉽다. 물론 저작에서 밝히고 있듯 고종을 중심으로 한 축우정책은 그 담당자의 유고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으며, 그 근거자료는 장윤걸 또한 밝히고 있듯 명확한 통계자료가 부실한 상황이나, 이러한 지점은 이후의 연구자들이 보완할 지점이라 생각한다.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시기에 접어들어 따라 축우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해당 장에서는 축우의 품종 개량을 위해 중요시되었던 씨숫소, 즉 종모우(種牡牛)를 둘러싼 여러 제도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위해 저자는 『朝鮮の畜産』, 『朝鮮畜産關係法規』, 『朝鮮畜産例規』, 『朝鮮農會報』 등 여러 잡지 및 법규집, 그리고 당시 축산관료였던 小早川九郎의 정리인 『朝鮮農業發達史』를 활용하고 있다.

식민통치를 주도하는 총독부는 정작 축우정책을 시행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 및 기술이 크게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道)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종모우를 공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 소유의 종모우를 통해 조선우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종모우를 강제로 선발하고 이들을 보호우로 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상 보호우 제도는 지정된 조선우에 대한 사용 및 처분이 오롯이 지방장관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즉 축우에 대한 권리가 속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보호우로 선정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보호우에 대한 관리 또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결국 종모우의 육성 및 관리는 민간이 아닌, 총독부 및 지방단체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앞서 도 소유 종모우의 사례에서 언급하듯 종모우를 육성하고 관리할 만한 어떠한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정책 및 제도는 시행 당시와는 달리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유명무실해지곤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24년 행재정정리를 통해 극대화되었다. 결국 1920년대 초에 들어 종모우 정책은 축산조합을 중심으로 이를 관리하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품종의 개량을 위하여 다양한 축우개량기술이 이식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축산품평회 및 증모우 증부에 대한 장려를 통해 홍보되었다. 이 과정에서 열등우를 도태시키고 육우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거세 또한 정책으로서 장려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선우를 대체로 농우로 활용하고 있는 조선 농민들에게는 수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조선우의 거세는 당분간 소를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술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거세 이후 소가 폐사하는 일 또한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장은 ‘경우대부사업’ 및 ‘공제보조사업’이 시행되는 1926년부터 농촌진흥운동 직전인 1932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축우의 증산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대목을 다루기 위해 이전 장에서 사용하였던 『朝鮮之畜産』과 『朝鮮畜産關係法規』, 『朝鮮畜産例規』 외에도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각종 언론자료를 다수 사용하여 정책에 대한 실제 농가의 반응을 서술하고 있다.

1차대전 이후 일본은 제국의 식량 정책을 유통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소와 말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조선우가 증산되어야 하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다. 총독부는 농가 1호당 소 1마리를 사육하여 이를 증식시키는 ‘1호1두주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농가의 재정적 역량 및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Top-Down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상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1910년대 축우의 증가는 정책의 결실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축우들로, 통계상의 발견에 지나지 않았음을 실무자들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 만성적인 재정 문제 속에서 이와 같은 정책은 시행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 장려를 위한 ‘갱신계획’에 따라 일본 대장성에서 저리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전환되었다. 정책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우를 대여해주는, ‘경우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대부사업’은 대체로 축산조합에 의한 신용대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금회수의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우의 대부는 상층농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는 축우 보유의 계층 편향으로 이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자금회수에서는 99%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으나, 정작 대부를 통해 축우의 수를 증산한다는 목표는 거의 기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소를 빌리는 예탁우 관행만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탁우 관행 또한 축우를 대여하는 수탁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었다. 즉 수탁자는 사육비용 뿐 아니라 30%라는 고율의 예탁료를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수탁 과정에서 축우가 송아지를 출산하더라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축우 사육의 부실로 이어졌다. 또한 수탁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축우를 사육하려 하였기 때문에 사육의 부실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탁우의 수는 20% 정도 증가함에 반해 전체적인 축우 두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

한편으로 소를 사육하는 데 있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시행되는 가축보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총독부 또한 농업경영의 기초를 한층 견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축우증식장려보조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번식용 암소를 구입하는 구입정책, 과 생산기술원 설치사업, 그리고 ‘축우공제보조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축우공제보조사업은 가축보험과 유사하게 소의 사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한 보

상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은 소의 가격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그에 반해 축우공제의 신청자는 높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즉 소는 안정적인 담보로 거의 취급되지 못하였으며, 농가의 안정성 또한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사업’과 ‘보조사업’을 토대로 한 축우의 증산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2장과 3장에 걸쳐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축산조합이다. 축산조합은 저자가 설명하듯 이른바 ‘반관반민’의 조직이다. 이는 식민지 시기 많은 조합이 그러하듯, 총독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민간에 일임하고 정책의 대변자로 삼기 위해 설립하는 전형적인 단체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축산조합은 어떠한 자율성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정책의 말단부에서 기능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규정되었다. 다만 식민지 시기의 조합들이 으레 그렇듯 그 기능을 일본 내의 조합제도와 비교하는 순간 식민지로서의 어떠한 특수성들이 도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비민주적 운영 및 관체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축산조합만의 어떠한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체조합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4장의 주요 내용은 농촌진흥운동 및 유축농업정책에 따라 축우 사육이 어떻게 안정화되는지를 묘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부딪힌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이 지적한 ‘쇠죽’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당 장은 저자가 목표하고 있었던 농업정책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그 구성 또한 조선우를 넘어 돼지, 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조선우와의 차이점, 그리고 연관성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인식된다.

1920년대 말 대공황의 여파로 농촌에도 경제적 공황이 닥쳐옴에 따라 농가경제의 위기를 타파할 필요가 있었다. 총독부는 농촌 사회를 안정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진흥운동을 구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다름아닌 ‘영농조직의 복식화’였다. 즉 미곡 중심의 농업과 더불어 농한기에는 가마니 및 짚신 제조 등 짚공예나 축산을 부업으로 삼아 농가의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책으로 수립된 것은 각 읍면마다 갱생지도농가를 지정하여 이들의 수준을 향상하는 ‘농가 갱생계획’이었다.

농가갱생계획에 따라 농촌에 장려된 방식은 농업에 축산을 결합시킨 유축농업이었다. 즉 축산을 일종의 부업으로 삼아서 영농다각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해당 방침은 일본 내에서 크게 장려되었던 것으로, 농가의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잉여노동력의 소화, 그리고 가축을 통한 비료의 자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앞선 시기에 걸쳐 조선우의 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경제의 안정화였기 때문에 이는 축우 증산과 매우 큰 연관을 지닌 요소였다고 말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갱생지도농가의 축우사육 추이는 1932년에서 1937년을 기점으로 하였을 때 자작농과 소작농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예탁우의 수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저자도 정문종의 글을 통해 지적하고 있듯이,⁶⁾ 농가갱생계획은 전체 농가의 20%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촌 사회의 추이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총독부의 축우증산정책이 거의 모든

6) 정문종, 1933, 『1930년대 조선에서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 농가경제안정화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쪽.

농가를 대상으로 한 ‘1호1두주의’를 고수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문제는 갯생지도농가로 대표되는 일부 농가의 갯생만으로는 확실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해 축산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소비가 곧 경제의 악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것은 조선 내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었던 ‘쇠죽’이었다. 쇠죽은 한반도 특유의 추운 겨울을 극복하기 위한 특유의 급여방식이었으나 축산 관계자들에게는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관습으로 비추어졌다. 이들은 조사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생식이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연료의 절감과 사료의 추가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 절반 정도의 비용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그 동안 조선우의 장점으로 언급되었던 ‘조선인의 축우애호사상’ 혹은 ‘조선우의 식성’과 대치되는 것이었기에 다분히 모순적이었다. 또한 생식의 장려는 농가의 관념에도 위배되는 것이었기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축우가 연약해지거나 심지어 폐사할 수 있다는 위기를 조성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함경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조선우에게 생식을 장려하는 정책은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었다.

또한 축우사육상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던 ‘농용임지설영사업’의 경우 대상 농가 200만 호에 대해 각각 약 1정보 정도의 산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실상 조선 전체 산림의 수와 비교하면 지극히 현실성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의 15% 내외로 시행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농가의 안정을 위해 당국이 제안하였던 여러 계획은 식민 권력 자체의 역량 부족, 그리고 농촌경제 및 관습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은 전시체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의 양상을 다루고 있다. 전쟁에 따라 기존에 일본이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무역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군수품 및 통조림의 용도로 조선우에 대한 수요가 또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즉 전시 축우의 수요가 격증됨에 따라서 이에 걸맞는 축우정책이 다시금 요구되었다. 저자는 일련의 과정을 해명하기 위하여 『조선우의축산학회보』, 『조선총독부관보』 외에도 『조선총독부대책조사회 관련 문서』, 『동척의 조선축산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건』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전시기의 축우정책은 축산행정의 강화, 축우자원의 증산, 그리고 축산물 유통의 통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 중 축우자원의 증산은 인력 증원을 통한 행정력 강화를 토대로 그 생산율을 기존의 6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약 250만 두로 조선우를 증산하는 계획이 입안되었으나, 이러한 계획은 쉽게 시행될 수 없었다. 총독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조선 농가의 ‘민도’를 문제삼고 있었다.

증산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축산물 유통의 통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총독부는 1941년부터 ‘공정가격제’를 실시해 가격 통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수요 및 공급을 강압적으로 조절하려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암시장 등의 불법행위만을 촉구할 뿐이었다. 이후 총독부는 전시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배급의 통제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책회사였던 ‘조선축산회사’였다. 이 회사는 조선우의 수이출사업을 독점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선우를 일본으로 유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강력한 유통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우의 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해방 직후 남한 내 축우는 61만 두에 불과하여 그 회복에 많은 시간 및 자원을 소모해야만 하였다.

노성룡의 글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지점은 결국 총독부의 재정문제이다. 품종개량을 위한 종모우 사업에서도, 축우증산을 위한 각종 대부 및 공제사업과 농가경제 활성화의 과정에서도 총독부의 재정 상태는 실상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만한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내 농가의 요청이나 축산 관계자들의 제안에 따라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어나는 일본 내의 수요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의문스러운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일본 내의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조선을 일종의 축우생산거점으로 재편하였다면, 그러한 목표수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국 또한 그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한다. 이는 장윤걸의 연구에서도 언급하듯 조선우라는 상품은 일본 제국의 무역 뿐 아니라 농업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당 장의 전개에 따라 총독부의 의도에 의문이 드는 지점 또한 존재하였다. 2장과 5장에서는 거세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총독부의 조선우 거세 정책은 품종의 개량과 육우로서의 가치 증진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우 수요 및 조선 내에서의 조선우 활용은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우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실상 식육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칭다오를 통해 수입되고 있는 상태였다. 총독부의 조선우 증산계획이 농가마다 소를 보유하여 경작을 장려하는 ‘1호1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작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여겨지는 거세를 거듭 추진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였을지 의문스럽다.

이 글의 내용은 식민지기 축우정책사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된 저작 중에서도 가장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이해하는 데 지극히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연구 성과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축우정책의 변천을 식민지 전 시기에 걸쳐 서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총독부가 문제시하였던 여러 관행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이는 서두에서도 밝혔듯 후학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자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쉬운 점 또한 존재한다. 이 글의 목적 및 의의는 저자가 밝히고 있듯 농업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축우정책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글의 전개에서 실질적으로 농업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많다고 느껴지는 않았다. 물론 4장의 내용은 농업정책사 및 실제 사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장절을 전후한 나머지 시기에서는 이것이 기존의 농업정책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조선 내의 소비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지점은 개항기에 한해서는 장윤걸의 글에서 어느 정도 암시되는 지점이나, 실제로 노성룡의 글에서는 축우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조선우, 즉 생우나 우피, 그리고 쇠고기 등의 소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이와 같은 수요가 분명 증가했으리라는 언급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라고 느껴진다. 특히 식민지 시기 일본 내의 수요 및 소비의 상황과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위 문단과 연결하여, 일본 내 축우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또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이 저작의 1장 1절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축우정책 또한 개항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편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시기적인 흐름이 30여 년 정도로, 실질적으로 조선의 축우제도가 재편되는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폭력성과 강제성, 그리고 시행착오는 일본 내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1940년대 이후 일본의 축우 상태가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전쟁 이후에도 빠르게 이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내 축우의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 또한 향후의 연구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우를 주제로 한 최근의 두 연구저작을 살펴보았다. 먼저 장윤걸의 글은 일본제국이 조선우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다양한 주체 및 이해관계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확장정책을 확인하고, 근대 한국의 조선우가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성룡의 글은 식민지 시기 전반의 축우정책을 토대로 조선우의 품종개량 및 증산계획이 어떠한 맥락에서 수립되었는지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축산 관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떠한 이상과 역량상의 한계, 그리고 현실적인 조선 농가와 전통에 대한 물이해가 정책의 전체적인 실패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두 글에서 누차 밝히고 있듯 개항기와 식민지기에 걸쳐 조선은 농업 국가였으며, 소와 소가죽은 조선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국-식민지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해당 주제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제국과 식민지 간의 경제적인 관계, 그리고 식민정책에 대한 분석으로서 조선우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아직까지도 후속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 많다.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 이는 다름아닌 조선우의 도축 및 조선 내 식용유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조선우의 가치는 생우 및 우피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쇠고기, 즉 식육의 맥락에서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는 본질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통조림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도축 과정에서 도출되는 어떠한 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음식점 및 일반 가정으로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식민지 시기 주요 질병이 수인성 질병이었다는 점, 그리고 디스토마와 기생충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도축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은 조선우의 수량적인 증가 뿐 아니라 가축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중대하게 접근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당대에도 알려져있는 것처럼 조선우는 민촌층의 매개이며, 기생충병의 어떠한 매개로서 언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병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이 축산위생을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동안 조선우와 관련한 가축위생의 지점은 우역, 즉 전염병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조선우의 소비는 일관적으로 증가해왔고, 현대에도 그러한 담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우와 만성질환의 양상, 즉 보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조선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는 지점이 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조선우를 둘러싼 연구는 이 글에서 소개한 두 거대한 저작을 기반으로 더욱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김진규, 「제국의 조선우 산업과 식민지 축유 육성」에 관한 토론문

노성룡(고려대)

본고는 식민지 축산업에 관한 대표적인 2가지 연구(장윤걸·노성룡)를 소개하고 비평하는 글이다. 발표자가 비평 대상으로 삼은 연구 중 하나가 토론자의 연구이기 때문에 토론문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식민지 축산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한국사학계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고, 연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자가 비평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보다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연구 지형, 본 비평문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 향후 식민지 축산업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 토론문을 갈음하고자 한다.

1. 식민지 축산연구의 지형

식민지 축산업에 관한 연구는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한일관계사에서 식민지 축산을 바라보는 연구 흐름이다.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무려 150만 두가 일본으로 이출 되었을 정도로 축우의 이출 규모는 상당히 컸다. 위 연구는 이러한 축우의 대일이출 구조에 주목하여 조선과 일본,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성(대일종속성)을 구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는 가축전염병과 방역체계의 형성에 주목하는 연구 흐름이다. 이 연구 흐름은 학문에 따라 크게 2가지 경향을 나타내는데, 우선 수의학계에서는 주로 한국 근대수의학의 형성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조망한다. 다음으로 역사학계에서는 식민지 방역체계의 억압성과 통치 효과에 주목하는 등 통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조망한다.

셋째는 농업사적 측면에서 식민지 축산을 바라보는 연구 흐름이다. 오늘날과 달리 20세기 초의 조선의 축산은 전업화 하기보다 농업에 긴밀히 결합한 채 발달했다. 따라서 축우의 생산·이용·소비는 농업 분야에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위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축산을 농업(농업환경, 영농조직, 농경문화 등)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식민지 축산의 성격을 구명하고 나아가 이것이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윤걸의 연구는 첫 번째 흐름을, 노성룡의 연구는 세 번째 흐름을 각각 대표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 흐름을 대표하는 연구로는 이시영¹⁾의 연구를 들 수 있다.

1) 이시영, 2010, 『한국수의학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연구사적 위치

장윤걸·노성룡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 그리고 한계는 본고의 비평문에서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평한 부분에 대한 답변보다는 해당 연구가 어떤 문제의식과 연구사적 맥락에서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근대사 연구 지형에 어떤 물음을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의 출발점은 식민지 농업사 연구에 있다. 식민지 농업사연구는 ①내재적발전론-②경제성장론-③식민지근대성론으로 이어지는 한국근대사의 연구 흐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개됐다. ①단계에서는 식민지 농업사회의 반봉건적인 성격을 구명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주제에 관한 연구가 핵심이었다.²⁾ ②단계에서는 경제성장론에 영향을 받아 근대적 농정과 농업생산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경제학의 방법론(추계)이 많이 도입되었다.³⁾ ③단계에서는 식민지근대성론 중에서도 규율권력·혜계모니론 및 식민국가론의 영향을 받아 조선총독부를 식민국가로 상정하고 근대적 농업기술의 보급과 쟁의조정기구를 매개로 농촌사회에서 통치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주목했다.⁴⁾

토론자는 농업사 연구 중 앞선 단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체되어 있는 농업사 연구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본고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 따라서 위 연구에서는 제도, 자본, 기술을 중심으로 쓰여진 농업사를 환경, 생태, 사회, 문화를 중심으로 다시 써 나감으로써 앞선 단계의 연구 흐름을 비판하고 식민지 농업개발의 성격과 한계를 구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에 과대평가되어 있던 식민권력의 생산력과 통치 효과를 상대화하고 동시에 과소평가되어 있던 농민적 경험과 기술체계를 재조명하고 싶었다.

축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소재였다. 그 이유는 당시 축우의 생산·이용의 형태가 농업환경, 영농조직, 농경문화 등 조선 농업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요소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후기부터 발달해 온 소농경영에 적합한 형태로 축우사육 구조가 발전해 왔고, 이에 조응하는 축우사육기술들이 성립해 왔다. 반면 총독부의 축산정책은 이러한 농민적 경험과 조선의 환경·사회적 맥락을 거세한 채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식민지 축산정책의 성격을 분석하는 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구명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 연구는 한국 근대 농업사의 연구사적 맥락에서 전개된 것이며, 농업정책과의 관련성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토론자는 기존 맑스주의에 기초한 사회구성체론 중심의 전통적 경제사 연구나 신고전파 경제학에 기초한 경제성장론 중심의 경제사 연구 모두 2023년에 이르러서 사회적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사를 비롯한 경제사 연구는 앞선 시대에서 활용했던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야를 더 확장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가 압축성장을 지나 압축소멸로, 벼락발전을 넘어 벼락소멸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의식을 반복하는 작업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 앞으로의 경제사 연구는 개발-성장의 신화를 상대화하고, 시

2) 대표적 연구로는 장시원, 1987, 『日帝下 大地主의 存在形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3) 대표적 연구로는 박섭, 1997, 『한국근대의 농업변동 : 농민경영의 성장과 농업구조의 변동』, 일조각.

4) 대표적 연구로는 松本武祝, 1998,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社會評論社.

야를 시장에서 사회와 삶의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 위 연구는 일체의 축산기술과 축산정책을 환경, 생태, 사회, 문화 등의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식민지개발의 신화를 상대화하고, 동시에 비합리적·비경제적으로 그려왔던 농민적 경험과 기술체계를 복원함으로써 근대축산사를 농촌사회와 농민의 삶 속에서 다시 그려내고자 했다. 물론 이 작업이 성공적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농업사를 비롯한 경제사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향성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3. 추후 과제

식민지 축산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비평문에서 지적하듯이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식민지 축산 연구는 어떠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까?

① 축산물 유통 및 소비 연구

축우를 비롯한 다양한 가축 및 축산물의 유통과 소비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사료의 부재 때문이다. 토론자가 연구를 하면서 축산에 관한 상당히 많은 사료를 수집해 왔지만, 조선 내 축산물 유통·소비의 전모를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유효한 사료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비단 축산연구 뿐만 아니라 식민지 경제사 전체에 해당한다. 식민지 경제사에서 유통·소비 분야는 사료도 적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하기 대단히 어려운 분야이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이 분야는 기존 역사학 방법론만으로는 연구의 활로를 뚫기 어렵다. 사료의 부족을 메울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류학이다. 최근 인류학에서는 자신들의 연구방법론(민속지)을 사용하여 기존 역사학이 접근하지 못했던 지점까지 연구 성과를 확장하고 있다. 인류학의 연구 방법론은 역사학은 물론 기존 역사학에서 자주 도입해 왔던 사회학·경제학이 접근할 수 없는 지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⁵⁾ 따라서 축산물의 유통·소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인류학 연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② 도축

기존 한국근대사에서 도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형평운동으로 귀결됐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도축의 역사상은 아직까지 제대로 구명되지 못했다. 도축 연구는 축산정책뿐만 아니라 도시 구조, 위생, 지방재정, 소비, 식문화 등 다양한 연구 분야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가진 주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로 한국사는 아니지만, 독일 함부르크 도축장에 대한 송충기의 연구가 있다.⁶⁾ 위 연구는 독일 함부르크의 도시 정비에 따

5) 이와 관련해서는 안승택, 2022, 「일소의 지역성과 유통망 속 중심-주변 관계: 지역 차별로 전환되는 민속문화의 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8-1가 주목된다.

6) 송충기, 2012, 「19세기 함부르크 도축장의 근대성: 인간과 동물, 그리고 사물 사이의 연결망(Networks)」, 『독일연구』 46.

라 시내에 있는 도축장이 시외로 이동한 후 시작되는 도축장 ‘근대화’의 효과를 분석한다. 도축장의 시외이전, 대규모 운송기술의 발달(철도), 동물 위생 검역의 강화, 가축 계량 및 통계의 정비 등으로 인해 중세시대까지 이어져 왔던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성이 끊어진다. 이제 시내에 모든 가축이 추방되고 시외 도축장에서 도축된 고기로만 동물을 접하게 되는 함부르크 시민들은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느끼지 못하게 되고 동물성을 상실한다(비동물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성을 끊어냄으로써 육류 소비와 동물의 상품화는 급격히 진전된다. 그리고 저자는 이를 홀로코스트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비동물화의 종착점이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물론 서양사 연구를 그대로 한국사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위 연구의 문제의식이나 연구방법론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③ 제국의 축산사

비평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정부의 축산정책은 식민지 조선의 축산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일본의 축산정책은 식민지 조선의 축산정책에 비해 훨씬 규모도 크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사 전공자가 새롭게 뛰어들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다만 축산정책의 시야를 식민지 조선에 머무르지 말고 제국단위로 확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

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축산자원을 공급받기 위해 일본, 조선, 대만, 칭따오, 만주, 북중국, 내몽골 등의 각 지역에 서로 다른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는 일종의 분업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제국 단위로 축산정책의 시야를 확장하는 작업은 일본 제국에서 조선의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구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힘으로 일본 제국 축산사를 그려내는 건 불가능하므로 공동연구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7)

④ 수의축산학 및 일본인 축산기술자 연구

한때 소위 ‘맨파워이론’이 유행하면서 식민지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농업 분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농업, 임업, 축산업 등 1차산업의 식민지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 근대 농학 및 임학은 물론 수의축산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위 비평문에서 언급된 토론자의 연구에서도 수의축산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근대적 수의축산학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기술인력을 어떻게 양성되었는지, 기술인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해방 이후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수의축산학을 비롯하여 1차 산업분야의 기술인력양성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이다.8)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인 축산기술자에 대해서이다. 일제가 한국을 강점할

7) 축산자원만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일본, 조선, 대만, 만주, 북중국, 내몽골, 남방 등 일본제국권 내 농림자원개발을 다룬 공동연구가 존재한다. 野田公夫, 2013, 『日本帝國圏の農林資源開發 : 「資源化」と總力戰体制の東アジア』, 京都大學學術出版會.

8) 물론 수의학계에서 이시영에 의해 근대수의학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기는 했다. 하지만 이를 식민지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다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시 수의축산인력 양성의 기본 골자는 조선에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다였다. 이에 따라 1937년에 이르러서야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수의축산학과가 개설되고 조선 내 수의사시험이 치러졌다. 즉 조선 내 수의축산 기술자들은 구조적으로 대부분 일본인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조선은 아니지만, 태평양전쟁기 당시 남방전선으로 파견되었던 일본인 수의사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자신들이 제3세계에서 가축전염병을 퇴치하고 아시아 인민들을 구해냈다는 공통된(자랑스러운)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본인 수의사들은 대부분 군의로서 일본의 원활한 침략전쟁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침략은 거세되고 기술만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축산기술자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전후 일본으로 돌아가서 남긴 글을 보면 자신들이 조선 축산의 ‘근대화’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침략과 기술을 분절적으로 사고하는 일본인 축산기술자들의 식민지 경험은 제국주의의 팽창 과정에서 근대적 기술체계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들의 멘탈리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